

SBS 매거진

정시동 만년
1995 6

「SBS 뉴스 2000」
이지현 앵커

TV Ch 6/AM STEREO 792KHz



전국방송으로 거듭나는 SBS의 재 출발



5월 14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민방의 개국과 함께 SBS가 전국방송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전국의 시청자를 찾아가며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여론 등을 고스란히 방송에 담아 전국민의 비함과 기대를 충족시켜 나갈 SBS는 4개 지역민방과 함께 새로운 방송 문화를 창조해 갈 것이다.

전국의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며 마련했던 특집 프로그램 및 행사를 모아 보았다.



축하합니다 민방 전국 네트워크 출범 1

특별 생방송

민방의 새바람

전국을 하나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민방이 개국함과 동시에 SBS가 전국의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된 5월 14일 아침 6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11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 「민방의 새바람 전국을 하나로」가 마련되어 그 출발을 활기치게 내딛었다.

우선 오전 6시부터는 민창기 감 석 황수정의 진행으로 4개 지역민방의 첫인사와 각사 소개, 그리고 인기 연예인 등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또한 SBS 리포터들이 각 지역의 독특한 풍습,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지역민들의 삶을 속속들이 소개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초대 손님



남보원 신영희 김국환 최동원 등이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음식 팔도 한마당을 펼치는 등 이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누려볼 수 있는 포문을 활짝 열었다.

11시부터는 민창기 감 석 박정숙의 진행으로 각 지역민방을 연결하여 지역민방 개국을 기뻐하는 각 지역의 모습을 생생히 전했다.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고적대 퍼레이드와 시민 인터뷰, 광주방송에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까지 자전거대행진을 펼쳐며 광주방송의 개국을 축하하고 광주사랑 환경살리기 운동을 실천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





대구방송 사옥 앞에서 직접
손에 물감을 묻혀 대구방송의
로고를 벽화로 만들어 내는 현장, 대전역 앞의
고적대 퍼레이드와 김보성 대전시장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또한 미국 NBC의 존 아고글리아 사장, 일본
NTV 우지이에 세이치오 사장, 대만 차이나TV
스용케이 사장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 사장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고 「SBS 8 뉴스」
「아스팔트 사나이」 「옥이 이모」 「TV 전파왕국」
등 전국을 찾아가는 SBS 프로그램들 소개와
더불어 각 지역민방의 자체 프로그램도 각각
선보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S**



축하합니다 민방 전국 네트워크 출범 ?

축하쇼

생방송 축하쇼

민방의 새바람 전국을 하나로



200명의 대학연합합창단의 웅장한 합창 속에 각 지역민방의 깃발을 든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등장한 SBS의 마스크트, 빛돌이의 민방 개국 선언으로 생방송 축하쇼 「민방의 새비람 전국을 하나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축하쇼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에는 '생방송 축하쇼'라는 글씨가 쓰인 노란색 고무 비행기가 공중을 날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5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축하쇼는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무대였다. 가수 성악가들의 축하무대는 아니리 인기 탤런트, SBS 개그맨, SBS 농구단 등이

종류동하여 전국과 시청자들에게 빈가운 첫인사를 하고, 이 무대에 함께 하지 못한 탤런트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은 화면을 통해 지역민방의 개국과 SBS의 전국방송으로의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을 통해 선보이게 된 SBS의 간판 드라마 「장희빈」과 「아스팔트 사나이」, 「육이 이모」 「그대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직접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특히 경상도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말극장 「육이 이모」의 주인공 육소리는 「많이 사랑해주시오」라며 극중에서의 같은

경상도 사투리로 애교있게 인사를 마무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울초 전국에 '모래시계 신드롬'을 일으킨 「모래시계」의 두 주인공 박상원과 최민수는 검정 양복을 입은 20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무대에 등장해 대형 화면 위에 펼쳐진 「모래시계」의 주옥 같은 장면들과 함께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모래시계」의 진한 감동을 전국의 시청자들과 함께 나눴다.

이 날의 축하쇼는 SBS 관현악단의 멋진 연주와 김정택 단장의 힘있는 지휘로 더욱 생생히 전해졌는데 무대 위에 차례로 등장한 대형 가수 이미지와 패티킴은 SBS의 전국방송을 축하하는 노래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인사했다. 차례로 이어진 대형 가수의 공연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축하쇼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뿐만 아니라 이 날 무대에는 콜라 듀스 DJ DOC 유 박이경 박진영 등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신세대 가수들도 총출동하여 축하쇼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생방송 축하쇼 「민방의 새바람 전국을 하나로」는 이제진 이소라 이영현 이훈 재키림 이수민 이홍렬 김승현 이아현 김지호 등 내로라 하는 MC 10명의 진행으로 매끄럽고 다채롭게 꾸며졌으며 민방의 전국 네트워크를 축하하는 자리답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 내려가 있는 그 지역 출신의
연예인들을 연결, 각 지역의 표정과 기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큰 체육관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자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는 이 날 첫전파를 내보낸
4대 지역민방을 통해 전국에 고스란히 전해져
참사 5년만에 전국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SBS와
지역 민방의 개국을 축하한 뜻깊은 자리였다.

사진/정분경





청소년을 위한 영광을 위한 드림 콘서트





김원준 듀스 박진영 박미경 DJ DOC 김건모 롤라
신성우 김중서 NEXT 신효범 신승훈 등 이름만 들어도
청소년들의 관심이 들릴 것만 같은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한 「청소년을 위한 드림 콘서트」가 5월 13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오후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녹화 시작도 전에
무대 위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많이 쏟아졌지만
인기 가수들을 한 무대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이 흔치 않은
라이브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4만 5,000여 명의
청소년들로 올림픽 주경기장은 대만원을 이루었다.

이 날 공연은 경기장 잔디 위에 대형 태극기가 하얗게
펼쳐지고 진행을 맡은 김승현과 이 본이 빨간색 오픈카를
타고 주경기장에 등장하면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영화 촬영 때문에 미국에 나갔다가 이 콘서트를 위해
잠시 귀국한 김건모는 '가요계의 태풍'답게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텔레비전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신성우, 김중서의 록 무대도 마려되어
청소년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더욱 높아진 콘서트의 열기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신승훈에 의해 한층 뜨거워졌다.





최후의 별하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백사의 숨소리
그날은 양귀파

그의 무대는 관중들 사이에 가득한 열기를 식히려는 듯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그는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직접 연주, 노래하여 공연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다.

청소년들은 현명 현명의 가수가 등장할 때마다 힘찬 함성과 노래로 함께 했고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청소년을 위한 드림 콘서트」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고, 19일 밤 8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전국에 방송되어 민방 전국 네트워크 출범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사진/신동준

열기 촬영/서창식



가나 초청 올림픽 축구 대표 환송전 LION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SBS 초청으로 내한한 가나 올림픽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올림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둔 5월 14일, 16일 잠실주경기장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이번 경기는 SBS 전국방송 출범을 기념하여 실시되어 전국 축구팬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가나 올림픽 대표팀은 91년 제1회 17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9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주전 선수들로 구성된 아프리카의 축구 최강팀이어서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둔 우리 올림픽팀의 전력을 점검하고 기량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민방이 개국하며 SBS가 전국방송으로 첫 출발을 내딛던 14일 오후 2시에



SBS
Rapido

20



SBS
Rapido

실시된 1차전에서는 두 팀 모두 뛰어난 기량을 펼치며 선전했지만 결국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다. 이날은 5월 덥지 않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5만여 관중의 열띤 응원 속에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날카로운 슈팅, 몸을 날리는 수비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현두 황연석 선수 등의 위험적인 슈팅이 가나팀 골키퍼, 수비수들에게 막혀 불발에 그쳐 관중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16일 저녁 7시 30분 수원종합경기장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는 3대 0으로 명쾌한 승리를 거두어 관중들의 승리의 환호성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는 1차전에서 발목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최용수 선수가 한국팀의 원톱으로 맹활약하여 가나의 진영을 흔들어놓는 멋진 경기를 펼쳐 축구팬들을 매료시켰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경기는 21일 홍콩과의 96 애틀랜타 올림픽 1차 예선을 앞두고 실시되어 우리 한국팀의 전열을 마지막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더욱이 아프리카 최강팀인 가나 올림픽 대표팀에 맞서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침으로써 올림픽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S**





사진/신동준

「SBS 뉴스 2000」의 이지현 앵커

기자 근성과 국제감각을 고루 갖춘 가능성 만점의 앵커우먼

뉴스 앵커 자리는 현장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뉴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저녁뉴스의 경우는 대개 기자로서 오랜 명성을 얻은 대기자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빠르게 접수되는 여러 기사들을 정연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아무래도 기자적인 감각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관례는 남자 앵커들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여성 앵커는 젊고 신선한 마스크를 지닌 아나운서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역할 또한 남성 앵커의 보조적인 위치에 불과했다.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기자직으로 발령을 받거나 메인 앵커자리를 차지하는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었고 보면, 「SBS 뉴스 2000」의 진행자 이지현은 정통 기자 출신의 여성 앵커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해 볼 만하다.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현장 경험을 많이 쌓지 못해서 미숙하고 부



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뉴스거리를 취재해오는 기자들이 모두 선·후배이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기사는 없는 셈이죠. 그게 부족하나마 강점으로 작용하는 듯 합니다.”

스스로 내리고 있는 평가대로 아직은 젊고 취재 경험이 적어 판독있는 면모를 보여주는 못하지만 깔끔한 진행 솜씨는 어느 앵커들과 비교해봐도 만만찮다. 또한 입사 초기부터 3년간 아침 생방송 「출발! 서울의 아침」의 국제뉴스 코너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익힌 방송 감각 덕분에인지 햇병아리 앵커답지 않게 차분

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지현은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한 해외 유학파다. 아버지의 늦은 유학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국민학교 5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가족이 모두 귀국한 3년 후부터는 혼자 남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까지 마쳤다. 그러나 명문 브라운대 동아시아학과에서 중국 고대사상을 전공하던 도중인 87년도에 연세대학교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다. 6개월 정도 체류하는 동안 그는 귀국할 것을 결심하게 됐고, 91년 졸업과 동시에 SBS에 입사하면서 그 뜻을 이루었다. 남들은 다들 해외로 나가지 못해 난리인데 왜 다시 돌아왔냐는 질문



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애초에 딸에게 좀더 폭넓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적당한 시기까지만 더 머무르기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87년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민주화 운동으로 한창 뜨겁던 국내 상황을 직접 겪으며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제겐 무척이나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죠. 결국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가 처음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다. 기자들에겐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거친 말투와 여기자들의 약한 입지 등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미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젖어 있던 그녀에게 보수성향이 짙은 한국 언론계의 풍토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면이 많았다.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전미지역에 환경운동이 한창일 때 대학을 다녔던 까닭도 있겠지만 일단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쓰레기 분리수거가 방송사에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그, 급기야 참다 못해 회의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는 건의 사항을 냈는데, 그때의 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런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도 타고난 원만한 성격과 오랜 독립생활을 통해 터득한 승부근성이 크게 힘을 발휘해 적응의 가속도를 붙여간 덕분에 걱정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던 선배들이 오히려 앞



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후배로 평가할 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각하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들의 인생관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결국 자라면서 자연히 오리아나 팔라치 같은 세계적인 인터뷰어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기자가 된 지금도 세계 각국을 드나들며 여러 사람들(특히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온 원동력과 생활상 등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자란 현장에 있을 때 더욱 기자다워 보이는 법. 본인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양이다. 특히 신참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재 기회를 자주 얻을 수 있었던 국제부 시절, 남녀 구분없이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네들의 풍토가 부러워서 세계적인 인터뷰어가 되겠다는 꿈에다 국제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는 한 가지 소망까지 덧붙였다.

“벌써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제 개성을 찾지 못한 탓일까요? 아직 앵커라는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앵커로 자리잡기 위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제부 소속 기자로 밤낮 없이 취재를 하고, 주말에는 뉴스 진행을 위해 하루종일 바쁜 까닭에 이지현 기자는 하루도 쉴 수가 없다. 하기야 기자가 쉬는 날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꽃다운 처녀이기에 데이트도 못하고 하루종일 일에 묶여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사람도 있다. 정작 본인은 초연한 눈치지만.

영어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시절 프랑스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익힌 불어와 전공 때문에 배워둔 중국어 실력 또한 수준급인 덕분에 남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을 그는 이미 한 가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2, 3년만 외국물을 먹어도 혀 꼬부라지는 발음을 해대기가 일쑤인 대부분의 유학생들과는 달리 아나운서 수준의 우리말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유학파라면 무조건 한겨울 뉘엿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지현을 기대되는 기자 중 한 사람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진짜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은 맛배기에 불과하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앞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땀굴어야 한다.

“국제부에 있을 때는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사들을 수집해서 정리하는 일들을 했으니 취재 일선에 나온 것은 몇 달 안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올해는 몸으로 배우는 해로 생각하고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 다잖아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작정입니다.”

일하는 젊음은 언제나 아름답다. 더욱이 확고한 꿈을 간직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매진하는 젊은이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이지현 기자를 만나면 바로 그런 일하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그에게 거는 시청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5

글/박석주·자유기고가
사진/신동준



- 발행·편집인/윤혁기
- 주간/송우현
- 부주간/송규환
- 기획/남지혜·신선화·김수정
- 사진/서항식·정분경·신동준

민방 전국 네트워크 출범



「아스팔트 사나이」



「TV 전파왕국」



축하합니다/민방 전국 네트워크 출범

- 6 [1] 특별 생방송 「민방의 새바람 전국을 하나로」
- 8 [2] 생방송 축하쇼 「민방의 새바람 전국을 하나로」
- 12 [3] 청소년을 위한 드림 콘서트
- 16 [4] 가나 초청 올림픽 축구대표 환송전
- 20 커버스토리/「SBS 뉴스 2000」의 이지현 앵커
기자 근성과 국제감각을 고루 갖춘 가능성 만점의 앵커우먼·박석주
- 26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유철용
- 38 「TV 전파왕국」·김태성
- 46 「스포츠가 좋아요」·정희돈

특집/전국 동시 지방 선거방송

- 54 [1] 바람직한 선거방송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오택섭
- 56 [2] 보도
철단 장비로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SBS의 기량을 맘껏 뽐낸 터·최금락
- 58 [3] 기술
최첨단 그래픽 시스템이 펼쳐보일 지역 특성을 살린 입체적인 방송·오건식
- 60 [4] 전산
전산 시스템과 통신망 구성으로 심층분석 정보를 빠르게 전달·이기석
- 62 [5]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의 묘미를 선보일 전달력 뛰어난 산뜻한 영상·장철수
- [6] 해외의 선거방송
- 64 투표할 대신 컴퓨터를 설치, 각종 집계되는 미국의 선거 풍경·백낙천

SBS 매거진-1995년 6월호·몽권 43호·1995년 6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라-5316·
 발행처/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우편번호 150-777, 대표전화 786-0792, 369-1114·
 인쇄인/김현식·인쇄처/주식회사 동아출판사, 대표전화 866-8800,
 편집처/케이컴, 전화 713-7143

「SBS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서울방송의 동의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SBS매거진」은 자연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라이네이팅이나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 66 조용하게, 그러나 민심을 격극 반영한 일본의 지방 선거방송·김성우
- 68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랑스의 극적인 선거 중계방송·신동욱
- 72 불안한 외환시리드 세 편/「시카고 메디컬」 「미라렛 조는 못일러」 「슈퍼맨」
 다른 사회를 들여다보는 유용한 창구·김진우
- 78 스튜디오 칼럼
 진솔한 얘기가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아이기 나라'를 꿈꾸며·정홍택
- 84 사람 사람들 [전] 보도국 기동취재팀
 전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든든하고 발빠른 신문고·임유정
- 90 서양학술장학재단 95년도 지원금 전달식 개최
- 92 「생방송 TV 가요 20」의 MC 이훈·재키림
 찾아온 행운을 빛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청춘·이기진
- 96 95년을 달린다/「아스팔트 사나이」의 동석 역, 정우성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가뭇지 않은 깊은 눈빛·조남국
- 98 프로듀서의 세계 [15] 이장수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앞서가는 감각과 박주필
- 104 SBS 광장/「사랑의 효잔치-제5회 고부노래자랑」
 시어머니에게는 효를, 며느리에게는 사랑을 심어준 훈훈한 자리·박경희
- 112 나도 한마디/정홍진·박병률
- 114 시청자가 쓰는 방송평/김민정·남경아·김철민



특집/전국 동시 지방 선거방송

프로듀서의 세계 [15] 이장수



「제5회 고부노래자랑」



SBS 문화살롱

- 118 영화/영화전문잡지 「키노」와 「씨네21」 창간에 부처·이재훈
- 120 가요/대중음악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획자 시대'·유세하
- 122 연극/연극 대사의 원전환 토착화를 바란다·이영미
- 124 광고/남편과 꼭 함께 보고 싶은 부엌 광고·문예란



■ SBS 특별기획 ■

아스팔트 시나이



스피드 힘 야망 도전 그리고 두 형제의 진한 우애와 사랑...

아스팔트 위를 힘차게 질주하는 젊은이들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용솨음친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늘 미래에 있으므로.

드라마 초반부터 장안에 아스팔트 바람을 몰고오는

화제작 「아스팔트 사나이」는 수, **목요일 밤 9시 50분에**

만날 수 있다.



도주 인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키운 동준(이병헌 분)은 피와 땀이 어린 새 자동차 프로젝트를 개발하지만 기수(허준호 분)의 음모와 화련(최진실 분)의 아심으로 산산히 붕괴되고 만다.

그런 와중에 동준의 마음 속에는 화련이 사랑으로 자리잡는데...

달구어진 쇠처럼 동준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더욱 강인하고 단단하게 성장해 나간다.





동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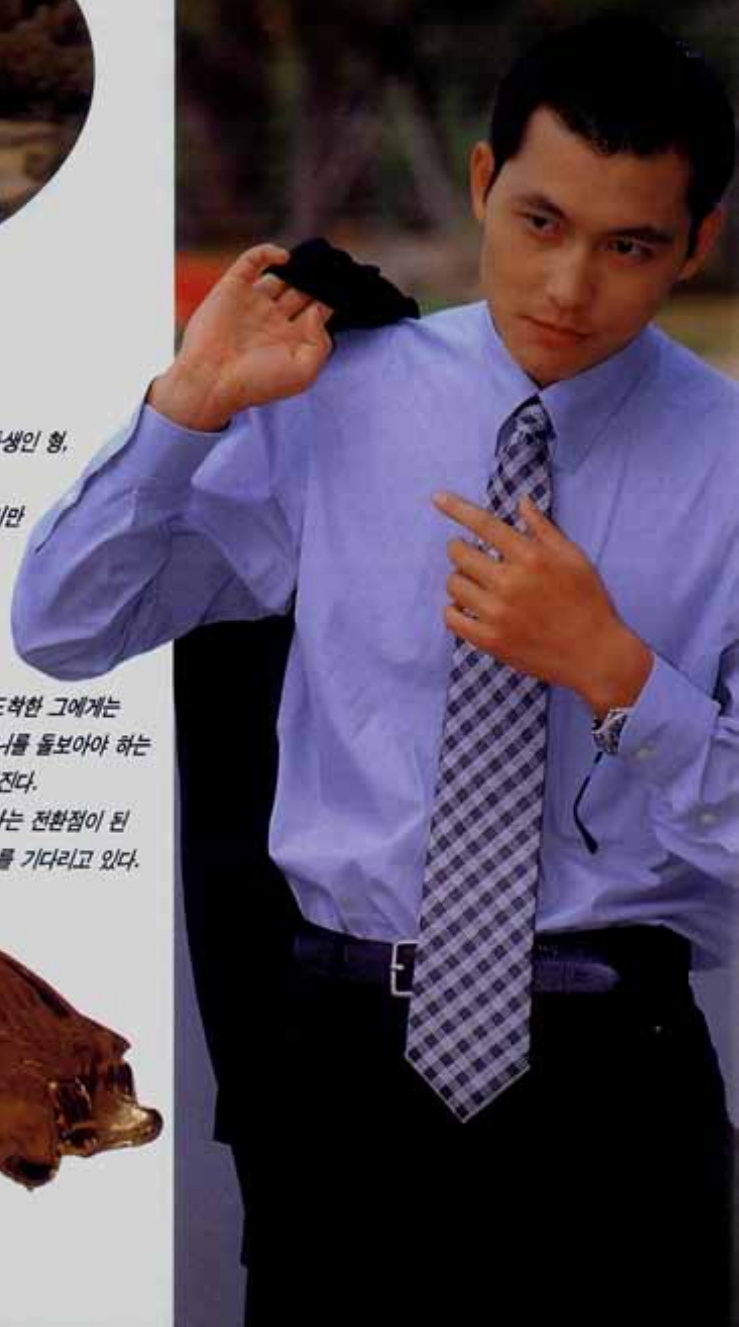
아버지의 사랑은 늘 우동생인 형,
동준에게만 향하고...

그 원망 속에 거침어지기만
하는 동석(정우성 분).

감옥을 들락거리며
밀바닥 생활을 하던

그는 누나 동희를 찾아
미국행을 결심. 미국에 도착한 그에게는
누나의 유일한 혈육, 씨니를 돌보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만이 떠맡겨진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빛나는 전환점이 된
카레이서로서의 삶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과 야망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야망은 모두 핑크 빛 순수함이 담겨 있다. 동준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야망 때문에 기수에게 기울어지는 화련. 그러나 자동차 시험 주행인 시베리아 횡단에서 동준을 도와주며, 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화련은 그래도 자신의

야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첫사랑을 가슴에 묻어둔 채, 누나 동희(이영애 분)의 딸을 키우기 위해 종욱(조민수 분)과 결혼하는 동석. 그의 슬픈 사랑에 더욱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은 거칠지만 순수한 그의 심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막과 설원에서 50여 일간 악전고투

미국 로케이션은 한마디로 전쟁 그 자체였다. 출국도 하기 전 공항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연기자 한 명이 출국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행기 시간은 초를 다투어 코앞에 다가오는데...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었다. 다행히 병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취한 끝에 허가를 받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촬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치러진 전초전에 우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미국땅으로 향했다.

유타의 설원에서 하얗게 지낸 밤들

2월 26일 밤 9시, 우리 촬영팀은 사시사철 눈이 끊이지 않아 스키어들을 설레이게 하는 미합중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소집된 긴급 스태프 회의, 현지 스태프와의 간단한 상견례와 더불어 47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가슴 시린(?) 순간이었다.



유타의 설원, 혹자에게는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26일 밤에 시작된 스태프 회의는 다시 캐스팅 작업으로 이어졌고 연기 퍼 촬영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느껴져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40분. 하얀 눈밭에서 하얗게 지새운 첫 날밤을 어찌 잊으리.

촬영 첫날은 모스크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국기가 미국땅에서 매달려 필러이고, 엑스트라들에게는 제복이 입혀졌다. 첫 촬영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계속 이어지는 촬영팀의 이동은 한마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었다. 촬영차량만도 50여 대에다, 장비차량 연기자차량을 합치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동 차량이 70~80대는 죽히 되었다. 쪽 뺨은 도로에 일렬로 세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유일한 지휘수단은 중간중간에 배치한 무전기 5대뿐.

우리들의 건강식, 햄버거를 향한 치열한 경쟁

눈보라 폭풍 속에서 밤 11시가 넘어서 먹은 햄버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미국 촬영기간 동안 우리의 건강식으로 단 하루도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햄버거가 그날따라 촬영장소가 워낙 외진 곳이라 밤 늦게야 도착한 것이다.

햄버거를 보자 모두 굶주린 이리메처럼 달려들었다. 식욕이라는 원초적 본능 앞에서 인간에게 이성이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고나 할까. 순진하고(?) 마음씨 좋은 우리 촬영 스태프들은 뒷전에서 머뭇거리다 햄버거 하나 제대로 쟁겨 먹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새벽 3시가 지나서야 도착한 추가분(?) 햄버거는 주인을 잃어버린 채 폭설 속에 파묻혀 갔다.



공통언어 “빨리 빨리!”

한치의 틈도 없이 꼭 짜여진 촬영 일정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빨리!”를 입에서 빼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미국 현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그 말은 익숙해져 갔다. “헤이! 제임스 빨리 빨리!” 이 표현은 조명 스태프가 미국에서 고용한 발전기사 제임스에게 늘 쓰던 말이었다. 제임스도 대답만은 청산유수다. “오케이. 빨리 빨리” 그러나 말뿐 느린 몸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조차 초월한 채 700년과도 같았던 7일간의 유타 촬영이 끝나던 날 밤, 신혼 2개월만에 길고 긴 해외출장을 떠나는 신랑을 위해 정성과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챙겨주었던 커다란 가방을,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가방을 호텔 방에서 도둑맞고 말았다. 나에게 남은 거라곤 신발 한 켤레와 입고 있던 티셔츠가 전부....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유타 공항을 떠나면서 나는 이유 없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그리고 팬

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기상이변과의 전투

다음 촬영지는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과 카지노에서 정신없이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네바다의 끝없는 사막 지역을 지나 버스로 12시간을 달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곳의 기후 조건은 최악이었다. 수시로 변하는 변덕스런 날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촬영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와서 잠시 촬영을 중단하면 다시 햇빛이 쨍쨍 비치고, 그래서 또다시 촬영을 속개할라치면 우박이 쏟아지고... 그야말로 기이하고 괴상한 날씨는 우리를 놀리는 양 괴롭혔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몇 십 년만에 샌프란시스코에 기상이변이 닥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촬영을 미룰 수는 없었다. 꼭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하

면 그 엄청난 분량의 신들을 도저히 마무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우박이 쏟아지면 우박을 씹으며 강행군을 치렀지만,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뜨거운 팀워크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흑인 빈민가에서의 초긴장

샌프란시스코에는 흑인 빈민들과 멕시코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빈민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지역의 살벌함은 유명하다. 우범지역으로 손꼽히는 이곳에는, 특히 주말에는 밤낮으로 총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스팔트 사나이」에 나오는 동회(이영애 분)의 집으로 이곳을 택한 탓에 우리는 불안감으로 초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의외로 우려했던 흑인들과의 촬영 기간 내내 별탈없이 지낼 수 있었다. 흑인 엑스트라들이 많이 필요하여 길거리에서 만난 흑인들을 통해 수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지역의 토박이들인 까닭에 쉽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쓴 것이 쑥스럽기까지 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 인정과 인심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진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사막에서의 외침 “이건 길이 아니야!”

4월 1일 새벽 5시 30분, 또다시 긴 사막을 횡단하여 실버픽 사막 한가운데 폐광이 있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촬영 준비팀이 먼저 가서 헬리 신의 스타트와 피니시 라인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약속한 시간에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엑스트라와 헬리콥터 등이 동원되는 몫신 촬영이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연락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코디네이터로 일하던 재미교포 한 명을 차에 태워 사막으로 찾아나섰다.

말로만 듣던 사막. 아무 것도 없었다. 가도가도 끝도 없는 모래밭뿐. 한 시간 이상을 달렸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잠시동안 고민한 뒤 현지 코디네이터가 택한 길 아닌 길을 또다시 한동안 달렸다. 그것도 분명 길이 아니었다. “이건 길이 아니야!” 외치는 순간 뭔가 팡! 하는 폭파음과 함께 앞이 캄캄해졌다. 길이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 순간 너무나 조용했다. 정신을 차리고 차 밖으로 빠져나와 보니 운전을 하던 코디네이터가 운전대에 그대로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비상물을 끼얹고 급한 김에 사정없이 뺨을 때리면서 긴급구조(?)에 나섰는데, 열대 정도 맞고 나서야 심음을 토해내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 “휴! 살아났구나.”

생사를 건 우여곡절 끝에 촬영지로 찾아가서 준비팀을 만날 수 있었고, 그날 헬기를 타고 그 마의 사막을 날으면서 감개무량해 했다.

그래도 우리는 해냈다

마지막 촬영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마지막 날은 정말로 잊을 수 없었다. 4월 10일을 귀국 날짜로 정해 놓은 촬영팀의 카메라는 4월 9일 밤 10시에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기상 조건은 미국에서의 50여 일을 통털어 최악. 해변가에서 촬영을 했는데 모래폭풍이 불어닥쳤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 코 입 할 것 없이 모래알로 가득 차 있는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박장대소했는지….

50여 일의 대장정은 끝났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프와 연기자들의 인고의 결실이라 믿는다. 장안에 온통 퍼져있는 「아스팔트 사나이」의 열기를 느끼면서 고생했던 기억들을 의미있는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기고 싶다. 5

글/유철용 · TV제작국 드라마
사진/서창식



연출/김 혁 김태성 최성인
 진행/이수만 이홍렬 김승현 신동엽
 흥복기 김경식 박진영 김지호

건국 설화

2월 하순 어느날 저녁, 「TV 건
 파왕국」의 탄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왕국 건설의 첫삽은 그때부
 터였다. 몇몇의 프로듀서와 한 명
 의 부장이 저녁 겸 1차를 마치고
 습관처럼 여의도 모처에 맥주잔과
 멀치 접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
 았다. 늘 그렇듯이 술잔이 거듭되
 고 시간이 흐르자 이야기의 초점
 은 회사와 방송으로 모아졌다. 혼
 히 ‘공장얘기’라고 하는 뭘 수 없
 는 삶의 밀착지역으로 습관처럼
 축적이 모인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의 ‘공장얘기’는 썬지 성토의 구호
 나 자조적 체념의 낯두리와는 조
 금 성격이 달랐다.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오락프

로그램이 지금처럼 표정도 성별도
 구별없이 한 모습화 된다면 시청
 자는 텔레비전을 외면하고 말거
 야.”

“뭔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형
 태의 프로그램 패턴을 찾을 때가
 됐어.”

“5월이면 전국 네트워크화 되는
 데, SBS다운 무엇인가가 필요하
 지 않겠어?”

“그동안 말로만 듣던 SBS! 파
 연 소문대로군… 뭐 이런 얘기가
 지방에서 터질려면 뭔가 강력한
 승부수가 필요해.”

“신명이 지나쳐 몸살이 나도록
 몰두할 대상이 있었으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간 후 자
 리는 파장됐지만 그 순간이 주말

전파왕국

일요일 밤 5시 55분부터 2시간 5분 동안 방송

저녁 텔레비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진원이었음을 알아차린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다.

“일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와이드 오락 프로그램을 기획해 봐!”

느닷없이 이남기 선임 CP의 지시가 떨어졌다. 마치 선전포고문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소년병의 심정이라 할까. 2시간짜리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큰 짐책

에 눌린 듯한 중압감이 먼저 들었고, 이어서 또 한 번의 신화가 가능할까 하는 식은땀 나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그러나 중추신경 한 편에서 스물스물 타기 시작하는, 쾌감에 가까운 이 전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마치 큰 전투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무사의 마음처럼 나도 모르게 투지가 살아나는 내 자신에게 놀랐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킬 틈도 없이 모든 일은 착착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MC 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거기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겸비한 6명의 프로듀서가 합세했다. 이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볼거리의 유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V 전파왕국」의 성공은 출발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진정 오랜만에 느끼는 민방다운 순발력과 대담함이었다.

먼저 6명의 프로듀서(연출 3명 - 김 혁 김태성 최성인 조연출 3명 - 남형석 배성우 김창동)가 규합되었다. 창사 이래 예능 파트에서 정규 프로그램에 이런 규모로 프로듀서가 모이긴 이번이 처음이었다. 프로듀서 숫자만으로도 이미 왕국이 되어버렸다.

명프로듀서들과 명MC들이 모인 만큼 프로그램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와 의욕도 남다르다.

김 혁 프로듀서와 MC 이홍렬 역시 머리를 맞대고 최고가 만드는 최고 프로그램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 8명의 MC, 이수만 이홍렬 김승현 신동엽 홍록기 김경식 박진영 김지호를 모았다. 프로듀서들마저도 설마설마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MC 8명을 다 모아 MC왕국을 만들고 만 것이다. 이걸 사건이라고 해도 나무람이 없었다.(비록 「SBS 8 뉴스」에는 보도가 안됐지만) 고스톱 용어를 빌리자면 기막히게 핏패가 맞아가고 있었다. 쓰리고 따따블을 노려볼 만했다.

그후 「TV 전과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획 작업이 본격화됐다. 연수, 합숙, 출장, 합숙... 강행군이었지만 누구도 피곤함을 내세워 주지않지 않았다. 순풍을 탄 데다 고기때까지 만난 어부의 심정이랄까. 웬지 느낌이 좋았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지만 이렇듯 기획한 대로 결과가 상당수 이루어

이수만



이홍렬



어지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물밑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막에서 물 찾듯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시점인지라 기획내용이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보안이 필요했고, MC 가운데 상당수가 타방송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간판급 스타들이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쿠데타를 준비

새로운 느낌, 신선한 즐거움, 구태의연한 제작방식의 탈피 등이 시청자를 향한 최대의 서비스 정신임을 「TV 전파왕국」은 항상 명심하고 있다.

하는 무리들의 심정처럼 스틸을 맞보는 순간들이 오랜 시간 계속됐다.

마침내 5월 5일, 「TV 전파왕국」은 왕국다운 규모의 세련되고 웅장한 세트 위에서 역사적인 첫 녹화를 거행한 것이다.

건국 이념

1. 「TV 전파왕국」은 차별화를 원칙으로 한다.

새로운 느낌, 신선한 즐거움, 구태의연한 제작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향후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일 것이고 시청자를 향한 최대의 서비스 정신임을 「TV 전파왕국」은 명심하고 있다. 차별화의 대표적인 코너는 '사랑나누기 TV 경매'이다. 방송 첫회부터 장안의 화제인 이 코너는 인기인과 관련된 화제의 애장품에서부터 무형의



김승현



신동엽



서비스 상품(예를 들어 신동엽의 웨딩카 서비스, 테너 박인수 교수의 결혼 축하송, 「모래시계」 서득원 촬영감독의 1일 자유 촬영권 등)을 자유 경매에 붙여 그 수익금을 모아 장애인을 돕는 1석 3조의 즐거움을 노리는 간판 코너이다.

낙찰자는 즐거운 추억과 영광을 간직하고, 유·무형의 상품을 내놓는 인기인은 이웃을 돕는 사회봉사에 한 몫을 하고, 그리고 그 행운을 즐기는 시청자에게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확연케 하니 그야말로 핑먹고 알먹고 등지 태워 손 따뜻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이 코너의 매력은 인기 연예인들이 등장해 대책없이 웃음만 연발하게 하는 기존의 패턴을 과감히 밀어내고 일반 시청자들이 참여해 즐거움을 나눈다는



데 있다.

‘사랑나누기 TV 경매’를 면밀히 분석하면 앞으로 TV 오락 프

홍록기



김경식



로그래의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듯하다. 왕국 건설 이후 최대의 수확인 셈이다.

2. 「TV 전파왕국」은 고급화를 선언한다.

이제까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고급화 개념은 하드웨어를 근간으로 한 하이테크 영상이나 세련되고 현란한 고도의 연출력을 의미하곤 했는데 「TV 전파왕국」의 고급화 개념은 ‘맘과 진실’을 오락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알파하게 발달된 포장술로 승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뜻한다. 그 대표적인 코너가 ‘대결! 팡팡’ ‘특종 박진영입니다’ ‘월드 챔피언’ ‘로얄박스’ 등이다.

특히 ‘대결! 팡팡’은 흥륙기 김경식 두 인기 개그맨이 최소한 3~4일, 최대한 3~4주에 걸쳐 준비한(습득한) 재능을 선보이는



‘대결! 팡팡’은 개그맨 흥륙기와 김경식이 최소한 3~4일, 최대한 3~4주에 걸쳐 습득한 재능을 선보이는 코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의 끈기와 근성이 돋보인다.

코너이다. 형식은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로 이뤄지지만 이 코너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끈기와 근성이며, 그것은 맘과 정성 그리고 진실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방송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 코너가 얼마나 계속되겠느냐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만, 바로 그와 같은 기존의 제작 습관과 인식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작

박진영



김지호



진의 결의이기도 하다.

3. 「TV 전파왕국」은 세계화를 추진한다.

요즘 일상이 되어버린 세계화란 단어는 세계 속에 섞여 있는 우리와 우리 속에 함께 하는 세계, 둘 다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TV 전파왕국」의 '월드 특급' 코너는 전자의 의미를 지닌 세계적 코너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다. 단순히 세계를 보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말과 얼 굴색이 다른 그들을 불러모아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김건모 손지창 김민종의 미국 상륙기에서부터 듀스의 스페인 모험기, 홍록기 김경식의 파리-로마 무전여행, 톨라의 모스크바 정복 등 세계 어느 도시, 어느 골목도 이제 「TV 전파왕국」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월드 챔피언'과 '로알 박스'는 후자 의미의 세계적 코너이다.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세



계적인 재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 또는 세계적인 유명인을 국내로 불러들여 우리의 안방 시청자를 즐겁게 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세계는 넓고 기획할 일은 많음을 새삼 느낀다.

4. 「TV 전파왕국」은 온 가족을 상대로 한다.

10대의 전유물이다시피 된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온가족에게 환원시키겠다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찾아가지만, 앞으로는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등 그 면회의 폭을 넓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건국 소감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단순히 일년에 두 번씩 있는 개편의 일환으로 봄에 태어나 가을에 없어지는 습관적 행위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인식 변화



한 「TV 전파왕국」의 배움을 수 없는 의지이다. 그 대표적인 코너가 '이홍렬의 음식면회'이다. 가족을 잠시 떠나 있는 자녀, 형제, 자매를 가족의 입장에서 찾아가보는 시간이다. 군대에 가있거나, 출장을 가있거나, 심야에 일을 하는 가족의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위로해 주는 코너로서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맛깔스런 음식과 함께 느껴 볼 수 있는 호젓한 코너이다.

초기에는 주로 인기인(가수 텔런트 스포츠맨 등)이 대상이 되어

가족을 잠시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 자매를 찾아가보는 반가운 시간이다. 이홍렬의 진행으로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찾아가는 이 코너에는 훈훈한 정과 맛깔스러운 음식, 그리고 재치 넘치는 웃음이 담겨져 있다.

와 제작자의 자세 변화라는 새로운 위상에서 태어난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서 「TV 전파왕국」이 탄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언젠가는 「TV 전파왕국」이라는 타이틀이 소멸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의미와 배경, 가치는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어느날 갑자기 시청자가 텔레비전 앞을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글/김태성·TV제작국 예능
사진/정분경

스포츠가 좋아요

연출/신중섭
진행/강석



“스포츠는 살아있다.” 얼마 전 국내 스포츠용품계를 강타했던 한 CF의 문구다. 이 광고의 카피처럼 스포츠의 본질은 꿈틀거리는 생명력, 즉 ‘살아있음’에 있다. 그라운드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힘과 열기, 역동성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스포츠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본질은 스포츠 보도에도 적용돼야 한다. 저널리

즘에서 첫째 요건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지만 스포츠 저널리즘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라운드를 달리는 선수들의 입에서 뿜어나오는 거친 호흡과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즉 현장성과 생동감, 역동성과 같은 요소들이 뒤따라야 한다.

또 한 가지, 스포츠 보도는 재미 있고 편해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같은 힘을 쓴다고 가정했



을 때 노동과 스포츠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만족도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격렬한 운동 뒤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큰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편히 쉬고 싶은 주말, 우리가 고수부지에 불을 차려 나가는 것도 모두 이런 스포츠의 특성 때문일 게다.

스포츠 보도가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기본으로 하고 생동감과 역동성 그리고 재미와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엮으려고 한다면 욕심일가.

SBS가 본격적인 스포츠 시즌의 개막을 맞아 프로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주말 생방송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 「스포츠가 좋아요」는 이러한 욕심을 가득 담고 태어났다. 안방의 시청자들이 정말 부담없이 스포츠의 생생한 묘미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 생동감과 역동성, 재미와 편안함'을 모토로 내건 「스포츠가 좋아요」, 특히 MC를 맡은 만능 스포츠맨 강 석이 뛰어난 스포츠 감각과 스피디한 진행으로 활력을 준다.

「스포츠가 좋아요」는 정보와 현장성에만 충실해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기존의 스포츠 뉴스와는 다른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 현장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재미있고 부드러운 형식으로 스포츠 정보를 전하는 데 제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 타이틀 「스포츠가 좋아요」에서도 제작진들의 이러한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가 좋아요」는 제작, 진행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과 확연히

다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MC. 종래의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진행자로 연예인 가운데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진 강 석을 캐스팅했다. 사실 MC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연예인을 MC로 선정할 경우 프로그램이 너무 오락쪽으로 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기존의 MC를 선택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딱딱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스포

스포츠 소식 코너에는 스포츠 취재자들이 직접 출연,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주며, 리포터들 역시 뛰어난 스포츠 상식과 재치있는 말솜씨로 활기참을 더해준다.



츄팡으로 볼릴 만큼 뛰어난 스포츠 감각을 갖고 있는 강 석이 주말 저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청자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좋아요」의 MC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예인 축구단 회오리팀의 단장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골프 스키 볼링 스쿠버다이빙 카레이스 등 각종 스포츠에 능통한 강 석은 첫 회부터 뛰어난 스포츠 감각과 스피디한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제작진들의 기대를 만족시켰다. 신문의 스포츠면은 하나도 빠



축구에기만 나와도
신바람이 나는 사나이,
김홍국의 스포츠
리포터 속씨는? 만능
스포츠맨답게 현장을
뛰어다니는 그의 바쁜
움직임에는 운동선수
못지 않게 화이팅이
넘쳐나고 있다.

트리지 않고 읽는다는 진행자 강석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높아 프로그램 진행중 제작진이나 구성작가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꼬집어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네, ○○○선수 볼을 요리조리 잘 몰고 가는군요. 네, 슛 골인!” 등 스포츠 중계를 연상시키는 듯한 말투와 재치있는 애드립

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오락적 기능이 가미된 스포츠소적인 분위기를까지 자아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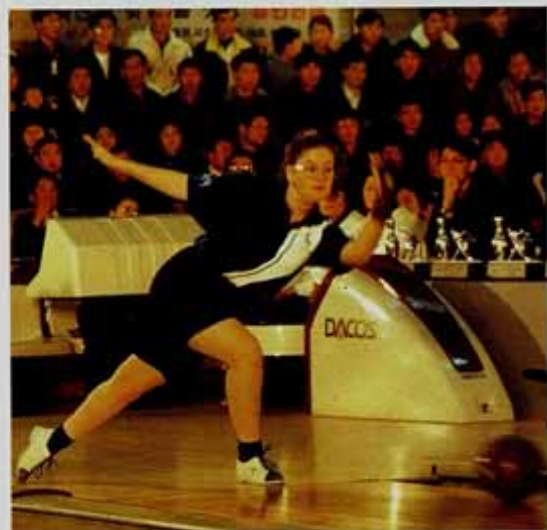
치밀하면서도 빠른 그의 진행 때문에 「스포츠가 좋아요」는 20분 동안의 생방송이지만 제작진들조차도 시간의 경과를 쉽게 느끼지 못할 정도다. 방송이 끝나면 “오늘도 너무 짧은 것 같은데”라며 시계를 쳐다보곤 한다.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MC를 했지만 「스포츠가 좋아요」처럼 저의 개성을 100퍼센트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처음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스포츠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행자 강석의 「스포츠가 좋아요」에 대한 열의와 만족감도 대단히 높다.

특히 「스포츠가 좋아요」의 제작진들이 강석의 개성을 더욱 살려 마련한 ‘그때 그시절의 스포츠’는 그의 구수한 해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직접 경기가 열리는 프로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현장에서의 생방송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스포츠가 좋아요」에서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부분은 매주 화제의 스포츠 현장과 인물을 찾아 소개하는 ‘스포츠 현장 취재’ 코너다.





생방송의 묘미는 순간의 환희를 포착하는 것. 열광의 그라운드에서 박한 감격을 누리는 선수들의 표정 하나 하나를 카메라 앞에 세워놓기 위해 제작진은 스포츠가 있는 그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다.

여기에는 리포터들이 등장, 보다 심층적으로 화제를 취재해 전해준다. 리포터들은 주로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 등 스포츠 전문 리포터들을 위주로 기용해 리포팅에 전문성을 곁들였다. 현재 리포터로는 축구선수 출신의 가수 김홍국과 농구선수 출신인 슈퍼모델 이세은 등이 활약하고 있다.

94년 미국 월드컵 한국응원단장을 맡는 등 축구에 많은 관심을 보인 가수 김홍국은 '길거리 축구' 코너에 등장, 직접 볼을 차면서 특유의 익살을 부렸다. 또한 전문가다운 리포팅으로 호평을 받으며 축구 전문 리포터로 뛰고 있다.

한편, 매주 주말의 프로야구 축구 등 각종 국내의 스포츠 소식 코너에는 취재기자들이 직접 출연,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현장소식을 생생히 전해줘 포맷상 자칫 가벼워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균형감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가 좋아요」의 밝고 건강한 분위기에 기자들도 일상적인 뉴스 스타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리포팅을 하며 스포츠의 활기참을 전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화면과 방송원고를 준비해 놓지만 생방송이기에 즉흥적인 애드립 해설을 하기도 하고 의상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등 보통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가지지만 「스포츠가 좋아요」의 제작진들은 국내 스포츠 보도에 새 장리를 연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스포츠의 현장을 뛰고 있다. S

글/정희돈·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
사진/정분경

특집/전국 동시 지방 선거방송

전국을 단숨에 연결하는,
기동성 뛰어난 **SBS**의 선거방송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자기 고장을 책임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한 번의 선거로 동시에 뽑게 되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국방송으로의 포문을 활짝 연 SBS 역시 이번 선거방송에 임하는 열의와 태도가 날다르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표결과를 보다 빠르게,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최첨단의 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민방과의 재빠른 통신망을 구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방송 메커니즘의 종합 정리라고 하는 선거방송의 정수를 SBS와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1 바람직한 선거방송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

오택섭·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는 6월 27일엔 실로 오랜만에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가 국력을 탕진하고 과열이 염려되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었으나 어차피 민주주의란 지방자치의 토양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명제가 더 큰 설득력을 나타낸 것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눈에 비친 후보자의 이미지가 당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며 따라서 감성적 매체인 텔레비전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예전에 유권자들의 투표 방향에 영향을 준 기준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 소속 단체의 정치적 성향, 후보자의 정견, 후보자의 인품 등의 순이었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반대로 바뀌는 듯하다. 텔레비전의 정보 전달과 설득적 기능이 놀랄 만큼 증대되면서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후보자의 인품과 성격, 곧 이미지가 투표 방향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막강한 텔레비전의 영향력 때문에 선거 방송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첫째, 텔레비전의 선거보도가 후보자간의 갈등을 정전 대립보다는 서로 말꼬리를 잡는 수사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토론이 아닌 싸움으로 격하시킨다는 점이다. 비록 후보 당사자들의 경쟁 수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방

송은 인물과 이슈가 연계될 때에만 기사로 다루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정견을 유도해 내어 선거 보도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림'이 좋아야 기사화될 수 있다는 텔레비전 매체의 속성 때문에 선거방송은 후보자의 '말(言)'보다는 '움직임(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좋은 '그림'은 훌륭한 '연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리한 관중 동원과 같은 인위적 상황을 만들어 낸다. 또 뉴스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후보자의 의견이 10~15초로 압축되어 방송되므로 마치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만 전달될 뿐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인상을 유권자의 머리 속에 심어 주기 위해 매우 표피적이고, 선동적이며 과격한 발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셋째, 우리 언론의 선거 보도가 후보자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듯 최근 연구에 의하면,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언론에 나타난 부시와 클린턴의 인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았다. 파란만장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클린턴은 선거 초반 일곱 명이 나선 민주당 후보 예비 선거에서 '7인의 난장이

(Seven Dwarfs)' 가운데 하나로 비하되었다. 정치 일반, 특히 선거전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가 이와 같이 부정적일 때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인을 불신하게 된다.

넷째, 방송인의 자세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선거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방송을 담당하는 기자나 프로듀서 모두 인간인 이상 개인적 편견과 선호가 있게 마련이다. 카메라의 앵글과 조명 그리고 배경, 그 자체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인이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동의 특정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방송하거나 보도량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등 다분히 자의적인 편파 보도를 하는 경우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언론, 특히 방송은 특정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의 폭로성 발언이나 존경받는 인물 또는 단체의 지지 성명은 사안의 진위를 떠나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난 5월 1일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에 관한 기준이나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 세칙에서도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방송 종사

자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방송이 선거전 못지 않게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타 방송사나 신문, 잡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특종, 단독 인터뷰, 특별 취재 등의 형식을 빌어 보도 경쟁에 나설 것이다. 이때 방송은 경쟁 매체의 보도내용도 얘기거리가 된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신문이 매체의 특성상 텔레비전보다 선거 보도 영역이 다양하고 심층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기사가 주관적이고 예측적인 단점이 있어 방송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신문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즉 방송 보도시 요구되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의 엄격한 기준을 못 지키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선거방송은 방송 종사자들의 확고한 민주 의식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데 있다. 거세게 밀어닥칠 여·야의 정치적 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 최선, 최상의 선택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적극적 의무'가 방송에 주어진다. 혼탁해질 수 있는 선거전에서 공정한 심판자가 될 방송 종사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중요 사안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거나 비판과 지지를 유보하는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시시비비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가리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중립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한 편의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려면 명배우와 뛰어난 연출가, 그리고 수준 높은 관객이 필요한 것처럼, 이번 선거가 멋진 정치극으로 기록되려면 선거의 3억인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특히 연출을 맡은 언론인들의 수준 높은 역할이 요구된다. 5





첨단 장비로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SBS의 기량을 맘껏 뽐낼 터

최금림·보도국 정치부 차장대우(선거방송실무반장)

0 는 6월 27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우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한 번의 선거로 모두 뽑는 우리 정치사상 첫번째의 동시선거다. 전보다 훨씬 넓게 자리잡을 투표장에 들어서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먼저 백색과 연두색으로 된 광역단체장(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장)과 기초단체장(구청장) 투표용지 2장을 받아 기표한 뒤 각각의 투표함에 집어넣고 나서 또다시 청색과 계란색으로 된 광역의회 의원(서울시의원)과 기초의회 의원(구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각각의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비로소 투표를 마치게 된다.

이번 선거는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자기 고장의 행정을 책임질 단체장을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뽑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소통령이라고도 하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위상을 가지게 된다.

선거방송, 정확하게 말해 개표방송의 핵심은 유권자 또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투표결

과와 그 결과의 의미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냐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대단히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 방송이 추구하는 목표가 대단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동시 지방선거에 임하는 SBS의 목표는 시청자들의 다원적인 욕구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SBS 선거방송의 특징이 될 것이다.

첫째, 네 가지 선거 가운데 시청자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뭐니뭐니해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단체장에 어떤 정당의 누가 선출되는가'일 것이다. SBS 선거방송은 우선 이런 관심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내 고장의 살림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역시 시청자들의 커다란 관심사일 것이다. SBS 선거방송은 시청자들의 이런 욕구도 가능한한 충족시키기 위해 편성의 묘를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마침 이번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4대 도시에 지역민방이 출범하면서 SBS의 전국화가 실현됐다. 이들 지역민방의 출범은 지방화의 개막을 알리는 이

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선거는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종래에 경험했던 어떤 선거보다는 훨씬 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앞으로도 개표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선거는 더 이상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시선거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투표방식은 종전대로 각각의 투표용지에 붓뚜껑으로 기표하도록 법으로 정한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의식의 산물이 이번 선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틀림없이 바뀌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고 아직도 모색하고는 있지만 이번 선거결과가 유권자들 앞에 모두 나오기까지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24시간은 걸릴 것이다.

따라서 개표 시작 후 하루 밤만 지새면 먼동이 채 트기도 전에 당선자 프로필을 모두 내보내고 첫닭 울음소리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찌들었던 어둔 그림자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던 종전의 선거방송과는 물리적인 면에서 아주 색다른 선거방송이 될 것이다. 최소한 24시간은 계속 진행될 개표 생방송은 꾸준히 지켜볼 시청자들에게도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하겠지만 방송 진행면에서도 대단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SBS가 신생의 단계를 벗어나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이런 정도의 생방송에서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SBS 선거방송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인내심있는 시청자들이 인내심을 버리고 그저 선거방송 그 자체의 재미

만으로도 선거방송을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득표수의 단순한 나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나타난 유권자들의 뜻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점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이 제공될 것이다. 첨단장비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결합된 기획물이 생방송의 묘미를 더해줄 것이다.



92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두 차례 전국 선거방송을 치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방송은 첨단 장비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선거방송의 묘미를 한층 더해줄 것이다.

‘선거방송은 방송사간의 역량의 시험대’라는 명제는 분명히 옳은 명제임에 틀림이 없다. 첫째는 같은 재료를 갖고 요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잣대이고, 원하던 원치 않던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편성해서 시청자들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BS가 텔레비전 전과를 쏟아보내기 시작한 이래 두 차례 전국적인 선거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처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분명히 다르다. 6월 27일 저녁 개표방송이 시작되면 이제 방송 매커니즘의 종합정리라고 하는 선거방송의 정수를 개표방송 초반부터 시청자들은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S



3 기술

최첨단 그래픽 시스템이 펼쳐보일 지역 특성을 실린 입체적인 방송

오건식·기술국 기술연구부 차장대우

어떤 이는 코끼리를 보고서 기둥 같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코끼리를 보고서 담벼락 같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누구는 선거 개표방송을 보고서 후보자의 득표 숫자만 이야기하며 또 누구는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만 이야기 한다.

선거 개표방송은 한 방송사의 얼굴(혹은 간판 프로그램)이라고들 이야기 한다. 물론 한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하여 제작되지만, 선거 개표방송같이 방송사의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야 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하겠다. 따라서 한 방송사의 총체적인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선거 개표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방송용 그래픽 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통하여 얻어진 선거정보를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 송출하는 최종 역할을 수행한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된 선거 데이터를 처리하여 정보로 가공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질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다.

앞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과정이 코끼리의 형체를 그릴 기본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선거방송용 그래픽 시스템은 이 코끼리를 예쁘게 보이도록 실제로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6월

27일에 치러질 4대 지방선거에서는 보여 주어야 할 코끼리가 4마리나 되므로, 이 4마리의 코끼리를 예쁘고도 세밀하게 치장해야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SBS 개국 이후에 텔레비전을 통한 선거 개표방송은 두 번 있었다. 첫번째는 92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이었고, 두 번째는 1992년 12월의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이었다. 이 두 선거 개표방송에 쓰인 그래픽 시스템은 SBS 기술연구부에서 자체 개발한 바이폰-1(VIPON-1) 및 바이폰-2(VIPON-2) 시스템이었다. 이 두 시스템의 개발 이후에 SBS는 발전하는 첨단기술에 발맞추어 보다 새로운 시스템인 바이폰-3(VIPON-3)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7일의 4대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예쁜 코끼리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 사용될 선거정보 그래픽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최첨단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활용

종래에 사용하였던 PC나 워크스테이션에 비하여 보다 그래픽 처리 능력이 빠르고 기능이 강화된 슈퍼 컴퓨터급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화면에 3차원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한 동적인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빠르다는 기능을 활용하면 남들이 단위 시간에 한 번밖에 보여줄 수 없는 코끼리의 모습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강화된 3차원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면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코끼리가 아닌 입체감과 움직임이 있는 코끼리를 보여줄 수 있게 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코끼리의 총체적인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활용

선거 개표정보를 전달하는 데 영상뿐만이 아닌 음향까지 이용하여 실질적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92년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음향효과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보다 확대 이용한다. 코끼리의 울음소리까지 들린다면 코끼리를 하마나 코뿔소라고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영상자료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영상자료의 표준 압축 및 복원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첨단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SBS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완전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 대비한다.

각종 분석자료의 그래픽 처리

급변 치러질 선거는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하나하나의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각각 선거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 즉 4마리 코끼리 사이의 관계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의 도지사는 A당 후보가 당선되고 도의회의 다수당은 B당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화면을 만들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개 선거의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를 분석한 각종 화면을 그래픽 처리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로컬 특성 화면의 제작

앞선 두 번의 선거 개표방송 중 14대 총선거에서 SBS는 개표정보를 주로 수도권 위주로 전달하여 왔다. 그러나 5월 14일을 기하여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 SBS로서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화면을 제공할 수 있어야 명실공히 전국방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은 부산 및 경남지역의 후보자를 위주로 한, 광주지역은 호남지역의 후보자를 위주로 한 화면을 독립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도 지역에는 인도 코끼리를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일 것이다.

이상에서 이번 4대 지방선거 개표방송 그래픽 시스템을 개발하는 SBS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의 기본방향으로 개발된 그래픽 시스템 위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선거 개표방송 그래픽 화면도 이전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로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코끼리도 편안한 코끼리가 좋지 않을까. 그것도 기억에 남는 생후 5년된 건강한 코끼리라면... 5





전산 시스템과 통신망 구성으로 심층분석 정보를 빠르게 전달

이기석·홍무국 전산부 차장대우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보일 SBS 선거방송 전산 시스템 설계의 기본 방향은 무·개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다양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최선의 개표 정보를 즉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SBS의 전국 네트워크화와 함께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 전국 및 지역성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지역민방들과의 통신망 구성 등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개표 정보 처리

이번 선거방송은 국내 최초로 방송사간의 합의 아래 무·개표 공동 집계 방식을 채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이용하게 됨으로 무·개표 현장 집계에 따른 비용 및 인력의 절감을 기하고 그간 속보를 위한 무개표소 현장의 경쟁은 이번 선거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동시 동일한 자료를 신속하면서도 시청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설계와 통신망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SBS 전산부는 다양한 정보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 전국 및 지역성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지역민방들과 통신망 구성 등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송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SBS의 선거방송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둘째, 정보분석 및 예측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통하여 시청자의 요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장시간의 선거방송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아이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 되므로 그에 따른 제공 정보는 실로 다양하고 이 모두가 화려한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될 것이다.

셋째, 전국망 구축

지역민방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질 이번 선거방송은 지역 주민들의 SBS 및 지역민방에 대한 기대를 만족 시켜줄 호기라고 보고 운영 및 송출 방식을 일원화하여 모든

SBS 정보를 전 국민이 공유토록 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Service on Demand)

SBS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사가 분석한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언론사 등 타 기관에도 제공하고, 특히 PC 통신 서비스사에 직접 온라인망을 개설하는 외에 별도의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다면적인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SBS의 선거방송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5



5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의 묘미를 선보일 전달력 뛰어난 신뜻한 영상

장철수·TV제작국 미술부 차장

논 하는 고민이지만 모니터 화면을 대할 때마다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특히 보도물의 경우는 더 하다)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과 함께 '얼마만큼 더 전달력이 있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개표방송이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는가. SBS 선거기획단의 CG(컴퓨터 그래픽)팀이 이번 선거방송에서 설정한 중점 목표는 '전달력이 뛰어난 아름다운 화면'이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시대의 개막'이라는 구호 아래 치러지게 될 4대 지방 선거에서 각 방송사들은 자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어느 경쟁이든 순위는 있게 마련이고 '일등방송'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선거 개표방송의 요체는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처리(각 후보의 득표 현황 및 분석)와 처리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정보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 정보 수집에는 수고를 덜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





이번 선거 개표방송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G팀은 빠른 전달력과 젊은 방송 SBS의 신선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신중한 화면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청자들의 눈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개표방송 당일의 순발력있는 대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국을 단숨에 연결하는 SBS의 기량을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하여 시청자에게 얼마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경쟁의 방향이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SBS 선거방송 기획단의 각 팀들은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과시하며 자신의 역할 분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거 개표방송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G팀 역시 그 분위기에 걸맞는 새로운 화면 구성과 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본 색조 및 디자인에서 기존의 지나친 점잖음(?)을 탈피할 예정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선거 개표방송 테이프를 참조해 보더라도 화면 디자인에 각각의 개성은 뚜렷하지만 간결하고 산뜻한 화면으로 전달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어느 곳에서도 쉽게 감지된다. 우리 또한 빠른 전달력과 젊은 방송의 신선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산뜻한 화면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신선한 화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시청자의 눈길이 머물러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95 4대 지방선거의 3차원 그래픽 메인 타이틀을 시작으로 SBS 선거 개표방송은 시작될 것이다.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눈길을 고정시킨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준비중에 있다.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눈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의 도입, CG팀 내에서의 역할 분담, 개표방송 당일의 순발력있는 대처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치른 두 번의 선거로 경험도 쌓였고 지난 5월 지역민방이 출범함에 따라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SBS의 역량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달력이 뛰어난 아름다운 화면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5



3 해외의 선거방송

투표함 대신 컴퓨터를 설치, 자동 집계되는 미국의 선거 풍경

백낙천·보도국 부국장대우 워싱턴 특파원

지난 4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근교 비엔나시에 시의원 선거가 있었다. 유권자 약 8,000명 가운데 약 1,000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를 한 사람은 주로 노인과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워싱턴 시내에 출근한 사람들은 힘들여 집에까지 30분간 차를 몰고오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대개는 60대와 70대 노인들. 시의원은 시간제로 봉사하는 명예직이어서 돈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들의 본업은 대개 변호사나 의사 등이다. 비엔나 시장 역시 16년간 장기 집권해온 60대 노인.

미국의 지방자치제 선거는 이렇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선거가 언제 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치러진다. 이런 특징적인 무관심 외에 미국의 지방자치제 선거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첫째가 투표 단계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들어가면 먼저 신분을 확인받는 절차는 우리와 같지만 포장을 걷고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함 대신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입력된 후보자의 이름을 누르는 것으로 투표는 끝난다.

미국의 선거 풍경을 우리하고 확연히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다. 투표하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후보별 득표수는 집계된다. 심지어는 어떤 민족 출신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를 했는지조차 다 알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다 끝낸 뒤 투표함을 개표소에 모아 많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원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개표를 하는데, 이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일이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은 미국에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컴퓨터로 자동 집계되므로 각 개표소에 보도진이 나가 수시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할 필요도 없고 밤새워 수많은 사람이 개표방송을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 미국의 지방자치제 선거다. 선거방송은 대통령 선거나 중간 선거 때나 있는 일이지, 지방자치제 선거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 당일 밤 10시쯤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집계 결과와 당락이 이미 다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될 무렵이면 수십개의 피켓이 길가 풀밭 속에서 있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사진은 6월 13일 실시되는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자치 선거 피켓.

밝혀져 그 지역 방송들이 뉴스 시간에 결과를 보도할 수 있게 된다. 양쪽 후보 진영의 선거본부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당선자 진영의 환호와 함께 낙선자의 패배 인정, 그리고 당선자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를 방송하는 것으로 선거방송은 사실상 일단락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선거와의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중앙과 별로 관련 없이 이뤄진다는 점. 중앙당의 인물이 소도시나 지방의 선거에 끼어들지 않으며 중앙당의 이념이나 강령하고는 거의 무관한,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원 의원하고는 달리 시장, 군수 등은 일종의 명예직이어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리 큰 인기가 없다. 소속 정당은 있어도 중앙당의 입김이 별로 작용하지 않아 정당은 의미가 거의 없으며 당내 경선 절차조차 없는 곳이 많다.

또 하나는 선거운동이 단순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모두 3~4차

례의 공동 연설회가 고작이고 이때 방청객으로 나온 유권자들이나 상대 후보의 질문에 얼마나 적절히 답변하느냐가 그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 그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후보들의 활동을 뉴스 시간에 보도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이 연설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13일에 실시되는 버지니아 주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람의 왕래가 많거나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세워진 조그마한 피켓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꺼번에 각 자치단체의 선거가 실시될 무렵이면 곳에 따라서는 수십개씩의 피켓이 길가 풀밭 속에 서있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용하게 치러지는 미국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보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제 선거도 좀더 차분한 가운데 정말로 유권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5



6 해외의
선거방송

조용하게, 그러나 민심을 적극 반영한 일본의 지방 선거방송

김성우·보도국 차장대우 도쿄 특파원

“0
T
리 동네를 위해 일할 자세와 능력이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이나 큰 길 가릴 것 없이 누비며 계속 토해내는 말은 고작 이 정도. 바로 일본의 지방선거에 나선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모습이다.

일본 지방선거에 나선 입후보자의 유세장에는 박수나 요란한 연호가 없다. 일본의 선거 입후보자들은 공산당 소속이든 무소속이든 모두 하얀 손이다. 유권자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선거는 청각선거가 아니라 시각선거다. 바로 조용한 선거다.

올해 일본의 지방선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4월 9일에 광역 자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고 4월 23일에는 기초 자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치러졌다. 출마한 입후보자는 광역의 경우 3,750명, 기초의 경우 1만 2,576명, 평균 경쟁률은 1.2 대 1을 약간 넘는 정도. 때마침 일본 열도를 강타한 옴진리교 때문만은 아니었다. 후보자와 그 운동원 빼놓고는 거의 선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선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무의식

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의식적인 무관심이었다. 은밀하게 무당파 반란을 지원한 것이다.

아오시마 신임 도쿄지사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인물.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에게 까지도 포스터 부칠 풀과 가위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후안무치에 가깝다고 할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그 청렴결백한 이미지로 일본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도 중국 예산보다 많은 도쿄의 큰 살림을 맡게 됐다. 선거 결과는 거의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최근의 일본 정당들의 행태는 유권자들을 거의 완전하게 외면한 것이었다.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우므로 기치를 내건 정당이 어떻게 기존 정당과 답합을 해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일본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처럼 철저하게 ‘아이노리’ 즉 이념이나 노선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서로 한 후보를 지원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역사의 ‘아이노리’가 아닌 ‘아이러니’가 일어난 것이다. 서로 승리하자고 한 것이 둘 다 패자가 되고 만 것이다.

아오시마 신임 도쿄지사과 마찬가지로 화

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요코야마 노쿠 신 임 오사카 지사는 원래 야당인 신진당 소속. 그러나 신진당이 오사카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여당과 손잡고 과학기술청 차관 출신의 전직 고위관료를 소위 '아이노리'하자 당을 박차고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해 압도적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리고 일본 유권자들은 기존 기초 자치 단체장의 파반수를 전혀 새로운 인물로 바꿔치웠다.



이렇게 조용한 정치혁명을 이룬 이번 일본 지방선거를 위해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들은 먼저 정확한 출구 여론조사로 불과 1퍼센트도 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결과를 일찌감치 예측해냈다. 당선 유력이다, 당선 확실이다를 예측해낸 것은 오랜 자료의 축적과 첨단 장비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특히 아오시마 신임 도쿄지사의 경우 그의 당선이 워낙 큰 관심사여서 각 방송들이 개표 속보를 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의 당선 확실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한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 아오시마는 SBS의 제휴회사인 NTV가 당선 확실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당선회견을 사양하였는데 그 모습에서 방송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민방들은 물론 공영인 NHK조차도 밤 10시 45분부터 속보라는 형식으로 개표방송을 실시했으나 철야방송은 하지 않았다. 민방의 경우는 지방 네트워크를 연결해 개표상황을 숫자로 전해주는 했지만 각지를 수시로 중계차로 연결해 개표 표정을 전하지는 않았다. 민방들은 때마침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중이어서 프로야구를 중계하면서 개표 소식을 화면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도쿄에서 두 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카시마의 이가리 읍장은 자칭 주민당 소속 읍장이다. 인구 4만 5,000여 명의 조그만 시골 도시 카시마에 전 일본적인 관심이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이가리 읍장의 노력 때문이다.

그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카시마가 신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침체되자 축구를 통한 화합을 내걸고 읍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카시마를 99.9퍼센트 불가능한 프로축구 J리그의 연고도시로 만들었고 바로 카시마 안도라스라는 프로축구팀은 온 주민들의 정성어린 지원에 힘입어 J리그 출범 원년인 지난 93년 우승을 차지해 일본 전역을 놀라게 했다.

그후 카시마에 밀려온 것은 사람과 돈. 축구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밀려들었고 이들이 갖고온 돈을 노려 대형 쇼핑센터가 두 개나 들어서고 카시마 라면, 카시마 과자, 카시마 손수건 등을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주민들은 축구장에서 응원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함께 웃고 울게 됐다. 이가리 읍장이 말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의 요건은 정치적 배경이 아니다. 바로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의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자민당도 신진당도 사회당도 아닌 주민당 소속이라면서 웃었다. 5



해외의
선거방송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랑스의 극적인 선거 중계방송

신동욱·보도국 차장대우 파리 특파원

1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일인 5월 7일 저녁 7시 57분, 프랑스의 최대 민영 방송인 TF1화면 한쪽에 있는 시계의 바늘이 돌기 시작했다. 선거 방송 진행자로 나선 간판 앵커 패트릭 파브르 다르보는 이제 3분 있으면 우리는 새 대통령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긴장된 목소리로 선거 본부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계속 불러댔다.

10초 전 8시가 되자 진행자 얼굴은 사라지고 시라크와 조스팽의 두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더니 마침내 8시 정각 시라크의 얼굴로 고정됐다. 그 순간, 그 옆에는 시라크 선거본부의 환호 모습과 함께 52.2퍼센트라는 득표율이 자막으로 처리됐다. (프랑스 언론감시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의 출구 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 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대도시의 경우 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은 8시 정각에 맞춰 당선 예정자를 발표한다. 당선 예정자라곤 하지만 출구 조사가 워낙 정확해 사실상 당선자 발표와 다를 없는데 이번에도 8시 예측치와 개표결과는 거의 맞아 떨어졌다.)

같은 시각 정각 8시, 프랑스의 국영 방송 프랑스2 화면, 어렴풋한 얼굴 음영이 점차

환해지더니 시라크 얼굴이 드러났고 득표율 52.0퍼센트가 자막으로 깔렸다. 얼굴 음영이 또렷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4.5초. 전국의 시청자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새 대통령의 극적인 등장을 주시해야만 했다. 서스펜스 효과면에서 좀더 앞서서일까. 8시 정각의 시청률은 프랑스2가 TF1을 17.5퍼센트 대 15.1퍼센트로 앞섰고 결국 프랑스 양대 방송의 선거방송 1라운드 대결은 국영 텔레비전의 승리였다.

이어서 두 방송의 숨가쁜 대담 경쟁이 시작됐다. 초대형 스튜디오에는 정치인, 언론인, 여론조사기관 대표, 시민 대표 등이 둘러앉아 투표 결과와 승인, 패인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사이 진행자는 중간중간에 현장 기자를 불러 양측 후보 진영의 표정을 알아본다.

물론 토론 중에도 승자와 패자의 선거본부 분위기, 시민들의 표정, 개신문에서 콩코드 광장으로 이어지는 시라크 지지자들의 자축 행진 등이 생생한 모습으로 잡히면 인서트 그림은 즉각 현장으로 넘어간다. 토론자들도 현장 기자에게 즉석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현장 리포트의 생동감이 매우 높게 보인다. 선거방송에 나온 논객들은 말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회에서도 내로라하는 '말장



사'들이기 때문에 토론 중간중간에 현장 중계를 넘겨야 하는 방송 진행자 입장에서는 토론자의 말을 끊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실제로 이번 선거방송에서도 시라크와 조스팽이 소감을 발표하려는 순간 현장 연결이 잘 안돼 현장 프로듀서가 자꾸 '스텐바이'만을 외치자 대통령 후보들이 짜증을 냈다는 후문이다. 아무튼 대담이 열기를 피자 TF1의 진행자인 프랑스 최고의 앵커맨 파브르 다르보의 인기와 현장 중계의 생동감에 힘입어 TF1의 시청률이 프랑스2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역시 프랑스 최대 민방의 저력은 살아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밤 10시 10분 선거방송이 중반 고비를 향해 가면서 전체적인 시청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선거방송의 열기가 수그러들려는 순간 95년 대통령 선거방송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졌다. 갑자기 프랑스2 화면에는 야간의 '도심 추적극'이 시작됐는데, 시라크의 승용차가 시청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질주하자 이를 뒤따르는 오토바이들의 추적 생방송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카메라는 승용차 앞에 바짝 붙어 대통령 당선자의 첫 표정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고 오토바이에 탄 리포터는 승용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듯, 시라크가 카폰으로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것 같다는 듯, 시라크의 일거수 일부족을 전하느라 목청을 높였다.

프랑스2는 추적 생방송을 위해 대단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우선 승용차 한 대가 뒤따르면서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시라크 승용차의 위치를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에 알려주면 비행기는 추적 행렬의 머리 위 위치를 유지하면서 오토바이로부터 송신되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파리 도심에 있는 방송국에 되쏘아주는 첨단 입체 작전이었다. 오토바이는 석 대가 뒤따랐는데 프랑스의 일급 오토바이 경주 선수들이 오토바이를 몰았기 때문에 당선자 시라크의 승용차는 도저히 이들을 따돌릴 수가 없었다.

14분 동안 이어진 추적 생방송은 단숨에 프랑스2의 시청률을 끌어올려 시청률은 다시 역전됐고 이후 새벽 1시 선거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2는 계속 시청률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오토바이 추적 생방송의 극적인 효과를 칭찬했고 이번 중계는 텔레비전 선거방송의 새 지평을 연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5

SBS 주말극장

옥이이모

극본/김윤경

연출/성준기

이모야, 니 생각나나?
박상 튀기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풀빵 굽는 냄새가 주린 배를 유혹하고,
땀샘이 땀땀이 닭싸움... 장에는 참 희한한 게
많았재이-. 그때가 그림재이-, 이모야!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에 눈을 감으면 내 어린 동심이 떠오릅니다….

토, 일요일 밤 8시 50분부터 60분간 「육이 이모」에서
그때 그 시절의 정겨움과 훈내음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메디컬



다른 시대를 들여다보는 유용한 창구

한 때 텔레비전 의화 시리즈의 전성시절이 있었다. 「6백만불의 사나이」 「소머즈」 「맥가이버」 등의 이름을 공통의 언어처럼 기억하는 세대라면 그것을 보고 자라난 동시대인으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미시족'으로 불리는 20대 후반의 한 주부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여섯살 연상의 남편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 인상깊게 보았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의화와 만화영화 제목이 서로 다른 걸 발견하고는 그전까지 실감하지 못했던 소위 '세대차이'를 피부로 느꼈다"고 말이다. 이처럼 70~80년대, 당시 국내 드라마의 제작 수준이나 내용이 그리 다양하지 못했던 시절, 신도블이 프로그램보다 먼저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게 텔레비전 의화 시리즈였다.

그러나 우리 드라마의 제작 수준이나 다루는 소재가 훨씬 발전한 요즘, 텔레비전 의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는 예전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흥미 차원으로만 텔레비전 의화를 방송하거나 또는 시청하는 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다른



마가렛 조는 못말려



사회를 들여다보는 유용한 도구로, 또 국내 프로그램의 깊이나 제작 수준을 비교해보는 잣대로, 텔레비전 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슈퍼맨



이런 관점에서 SBS가 봄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세 편의 외화 시리즈를 재구성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새로 선보인 외화는 「시카고 메디컬」 「마가렛 조는



한국계 코미디언 마가렛 조가 주연을 맡았다는 사실 하나로 처음부터 대대적인 화제를 모았던 홈 시추이션 코미디 「마가렛 조는 못말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내세우는 이민 1세대 부모와 미국식으로 살아가려는 2세대 자녀들간의 갈등과 애환, 극복과정을 미국인의 시각으로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다.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방송)



못말려」「슈퍼맨」등 세 편.

이 가운데 한국계 코미디언 마가렛 조가 주연을 맡았다는 사실 때문에 국내에 선보이기 훨씬 전부터 대대적인 화제를 모은 작품이 바로 「마가렛 조는 못말려」(일요일 오전 9시 30분 방송)이다. 주연을 맡은 마가렛

조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드라마를 전공하고, 91년 미국 대학 코미디 경연대회에서 서부지역 우승을 차지하는 등 몇 개 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미국 코미디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신데렐라.

지난 94년 9월 가을 시즌부터 「올 아메리칸 걸」이라는 이름으로 ABC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됐던 「마가렛 조는 못말려」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면서 겪는 문화적 차이와 세대간의 갈등을 담아내는 홈 시츄에이션 코미디이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방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는 미국인들이 어떤 인식과 시각으로 한국인을 그리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극중 가족 구성원은 솔직하고 온화한 할머니, 보수적이고 극성스러운 어머니, 책방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 우등생이며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는 의사 오빠, 수줍음을 타면서 어리광도 부리는 남동생, 자유분방하고 가끔 말쑥도 부리지만 결코 밋지

않은 말괄량이 딸 마가렛 등이다.

이 가운데 딸 마가렛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는 부모 세대에 반대하면서 미국식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종종 보여줘, 미국의 이민가정 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1세대 부모와 2세대 자녀들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가렛이 미국인 남자와 교체하려 하자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며 착하고 성실한 한국 청년과의 교제를 고집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

“전통을 지키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글쎄, 애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으니까...” 마가렛 어머니와 아

버지의 대화가 이런 제작의도를 충분히 함축하고 있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미국내에서 분분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예환을 개그보다는 유머감각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USA 투데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소재로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흔해빠진 3류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는 혹평을 가하기도 했다.

극중에서 할머니가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내 시청하는 모습이나 한국식 상차림 등 한국 특유의 소품과 풍습이 종종 등장하



넙혔한 이성과 뜨거운 눈물을 동시에 지닌 의사의 이야기가 숨겨지게 전개되는 휴먼 메디컬 드라마 「시카고 메디컬」, 시카고 호프리는 종합병원을 무대로 갖가지 급박한 사건들과 동료 의사들간의 경쟁과 갈등, 의료사고 등 의사들의 직업세계를 진지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 미국에서도 이미 호평받았던 작품이다. 전문직을 그쳐 극의 들러리로만 설정해 놓고 실제로는 멜로드라마나 다를 바 없는 우리 드라마에게 정문일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그러나 '한국 가정의 생활이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했다'는 교포사회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게 바로 「마가렛 조는 못말려」의 우리식 감상법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 의료계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창구가 바로 「시카고 메디컬」(수요일 밤 10시 55분 방송)이다. 지난 93년 가을 시즌에 미국 3대 네트워크의 하나인 NBC와 CBS는 치열한 의학드라마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 동시에 탄생한 의학드라마가 바로 CBS의 「시카고 호프(Chicago Hope)」와 NBC의 「ER」이다.

이 가운데 SBS가 들여온 것이 바로 CBS의 「시카고 호프」이다. 20세기 폭스 TV가 제작한 이 작품은 시카고 호프라는 종합병원을 무대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눈물을 동시에 지닌 의사들의 이야기를 숨가쁘게 전개시키는 휴먼 메디컬 드라마이다. 고난도의 심장이식수술, 머리가 붉은 쌍둥이의 분리수술 등 병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

가지 급박한 사건과 동료 의사들간의 경쟁과 갈등, 의료사고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의사들의 치열한 삶을 리얼하게 그려내 호평받은 작품이다.

다혈질의 심장전문의 제프리 가이, 차분하면서도 인간적 고뇌에 쉽게 빠지는 성격의 신경외과 전문의 아론 셔트, 셔트 박사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고 마는 수간호사 카밀리 셔트, 흑인 여의사라는 사실 때문에 인종차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윈슬로우, 평소 고지식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왓터스 박사 등이 드라마의 주요 등장 인물.

극 자체로도 재미있지만, 국내 방송 제작자들에게 '전문 드라마라면 그것이 다루는 직업세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또 사실적으로 그려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다. 고중의 문제가 자주 불거져 나 온다든지, 전문직을 그저 극의 들러리로만 설정해놓고 실제로는 멜로드라마나 다를 바 없는 안이한 제작 태도를 가진 우리 드라마에게 정문일침의 역할을 한다면 시청자로서 더



만화와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한 영화 등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슈퍼맨」. 딘 케인 주연의 이번 「슈퍼맨」 시리즈는 93~94년 워너브라더스사가 매회 60분짜리 텔레비전용으로 새롭게 만든 것.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 때 펼쳐보이는 슈퍼맨의 초능력과 그것을 빛발칭 해주는 특수효과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가족오락영화이다. (토요일 오후 5시 방송)

욱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다.

지난 5월 13일 첫방송된 「슈퍼맨」(토요일 오후 5시 방송)은 만화 시리즈와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한 영화 등으로 인해 너무나 잘 알려져있는 작품. 공상과학영화인 만큼 위의 두 작품과는 달리 그저 재미있고 가볍게 즐길 만한 오락용이다.

이번에 선보일 시리즈는 93~94년 워너브라더스사가 매회 60분짜리 텔레비전용으로 만든 것. 슈퍼맨 역은 딘 케인, 상대역인 여기자 로이스 역은 테리 헤치가 맡았다. 감독은 로버트 버틀러.

전체 골격은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슈퍼맨은 크립톤이라는 외계 행성에서 지구에 우연히 떨어진 이후로 지구인 양부모의 손에서 자라나 성인이 된다. 지구에서의 이름은 켄트 클라크. 슈퍼맨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이 지니지 못한 초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섞여 살고 싶어하는 클라크는 평상시에는 데일리 플래닛 신문사의 기자로 일한다. 클라크는 신문사에서 만난 여기자 로이스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크고 작은 사건에 부딪치며 살아가는 클라크는 그때마다 슈퍼맨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감상 포인트는 특수효과. 슈퍼맨이 초능력을 펼쳐보일 때마다 보이는 각종 특수효과가 흥미를 끝만한 장치다. 5

글/김진우·자유기고가



정훈택·「792 토크쇼 정훈택의 이야기세상」 진행자

「792 토크쇼 정훈택의 이야기세상」의 진행자 정훈택 씨는 한국 외국어대 영어과,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원,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 정책 과정을 거쳤고, 한국일보 출판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미국말」 1·2권, 「감학사건」 1·2권이 있고, 「노인과 바다」의 다수의 번역서를 냈다.

서 태평양에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다.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몇 개 중 하나인 섬나라이다. 인구는 8,000명, 크기는 8평방 마일, 끝에서 끝이 보일 정도로 아담한 곳이다. 이 나라는 196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여겨질 만큼 잘 살고 있다.

그들의 수입원은 '새똥'이다. 이곳은 새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새가 살고 있는데, 이 새들이 배설해놓은 새똥이 이 나라 국민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새들의 배설물에서는 아주 질 좋은 인산비료가 만들어 지는데 이것을 인근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에까지 수출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새의 배설물이 언제까지 '효자 노

진솔한 얘기가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이야기 나라'를 꿈꾸며

롯'을 할 것인가. 나우루 지도자들의 당연한 걱정이었다. 그래서 인산비료를 수출해서 얻은 수익금을 오스트레일리아 신용금고에 예금해 놓았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 동에서 생기는 인산비료는 오는 2,000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하지만, 신용금고에 예금한 이자로 전국민 8,000명이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민주공화국 체제이고, 17살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세금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꿈 같은 나라다. 그러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게다. 살기 좋아지면 게을러지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풍요로움에 목말라하게 된다. 생활수준 교육수준이 비슷하고, 언제나 하는 일이 똑같고, 보고 느끼는 것이 같게 되면 이야기 거리가 없어질 것은 뻔하다. 사람 사는 데 이야기 거리가 없으면 참으로 삭막해진다.

우리가 추울 때 몸을 덥게 하려면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에 칼로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더운 여름보다 추운 겨울에 사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

항상 편안한 삶 속에서는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792 토크쇼 정홍택의 이야

기세상」이 생긴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3월 20일에 첫방송을 시작하여 5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벌써 170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1년이 되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야기세상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우루처럼 항상 무덤고, 돈 걱정 없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사는 것을 흔히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곤 한다. 각 파트별로, 연주자별로 자기 개성이 있으면서도 혼자서 뛰지 않아야 좋은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 멤버가 모두 좋은 연주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올린 파트는 수준이 높운데, 관악이 약하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일류가 될 수 없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관악이나, 퍼커션이나 모두가 일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기의 모습을 보면 생긴 것이 전혀 틀리다. 오보에와 클라리넷은 비슷하지만, 팀파니와 비올라는 아예 딴판이다. 소리도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모이면 하나의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792 토크쇼 정홍택의 이야기세상」에 출연한 사람들을 보면 악기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행정계의 최병렬 서울시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 이명박 김상현 국회의원,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장관, 문학·교육계의 시인 구상, 장윤병 전 성균관대학교총장, 소설가 이호철, 박용구 씨 등이 출연했다. 또한 종교계의 박삼중 스님, 설봉 스님, 윤인수 목사, 이창근 목사, 의학계의 이시형 박사, 김정일 박사, 법조계의 김홍한 변호사, 김삼화변호사 등이 출연하여대담을 나누었다.

문화 예술계 인사들도 이야기세상에 많이 참여했다. 임영웅 윤석화 정선경 김수희 김병세 김미숙 김도향 전유성 진미령 오숙희 유현목 허 참 임 호 임 충 정건섭 정종화 김희갑 양인자 나현희 정한용 정두수 현 미 한 명숙 김세원 김갑수 하지나 최희준 김희련

윤여정 박규채 강리나 전영록 김학래 임미숙 변영주 김금지 전무송 서정운 김자경 필립리 조용원 김수남 패티김 이신우 박윤정 김진애 황지우 옥소리 인병선 재키림 이재우 이유인 씨...

“SBS 라디오 박건삼 국장입니다”라는 전화를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 진행을 섭외받고, 나는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라면 라디오의 황금 시간대인데, 그 흔한 음악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토크쇼를 하겠다는 용기에 놀랐다.

둘째, 그 토크쇼에 요새 이름 날리는 젊은 연예인이 아닌 나를 진행자로 결정했다는 데도 놀랐다. 놀란 마음을 가지고 SBS 10층 라디오국에서 박건삼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일러스트·김진욱

들어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 토크쇼 1, 2, 3, 4부 동안에 재미있는 것 한 가지, 유익한 것 한 가지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토크쇼의 형태를 가진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지만 따져 보면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느 나라 보다 살아가는 얘기 거리가 많은 곳이 우리나라인데 토크쇼가 부족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마도 너무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매일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재미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최고기도 부위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 같은 과일도 맛이 틀리지 않은가.

의사들이 불평을 한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모두 얼굴 찡그린, 아픈 사람들뿐이라고. 변호사들이 불평을 한다. 모두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러나 「792 토크쇼 정홍택의 이야기세상」은 살맛이 나는 자리다. 모두가 신이 나는 사람들,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큰 자리매김을 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좋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

이제 두 달밖에 안된 프로그램이 청취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궁금하다. 될 수 있으면 구수하고, 아기자기하고, 오손도손하게 청취자들 품속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게 진행하는 사람의 꿈이다. 가장 귀중한 시간에 토크쇼를 앞에 내세운 놀랄만한 용기가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 수십 개의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듯이 수천 수만 개의 이야기로 멋있고 맛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새의 배설물로 풍요롭게 사는 '나우루'라는 나라보다는 험한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풍요로운 「792 토크쇼 정홍택의 이야기세상」이란 작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5

사진/정본경



95

한국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SBS와 니드리 화장품이 공동 주최하는 「'95 한국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가 7월 16일 오후 7시 리플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한국 최고의 슈퍼모델을 선발하여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패션시장과 모델들의 수준을 한껏 높여왔던 이 대회는 올해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모델 에이전시인 엘리트 모델사와 계약을 맺고 「슈퍼 엘리트모델 선발대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서류전형과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32명의 미인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무대를 펼치게 된다. 현재 32명의 후보들은 워킹, 재즈발레 교육과 스틸사진 촬영, 국내 합숙 촬영, 호주에서의 해외 촬영 등 보다 뛰어난 모델로서의 기량과 세련미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기도 복잡하고, 법도 복잡하고, 사람관계까지 복잡해진 오늘을 살아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명백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옛날 성군이 만드셨다던 신문고를 새삼 그리워하곤 했던 우리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난 5월 8일 「SBS 8 뉴스」를 통해 문영리의 물문제를 심층보도하며 본격 가동된 '기동취재 다이얼 2000'이 바로 그 신문

은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보도국에서 뛰다 난다 하는 기자들은 다 모여 있다. 일단 멤버 구성 하나만큼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느낌을 준다.

“우린 취재하는 덴 취미이어서도 취재 당하는 덴 취미 없는데요…”

총대를 매고 인터뷰 자리에 먼저 앉은 홍성욱 팀장의 첫마디가 재미있다. 사람 취재하는 데는 도사들인 만큼 취재당하는 자의 고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사람 사람들 ㉘

보도국 기동취재팀 전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든든하고 발빠른 신문고



고다. 심도있는 뉴스를 지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SBS 보도국이 시청자들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비장의 카드. 그런 만큼 이것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할 기동취재팀의 멤버 구성 또한 신중한 선택을 요했을 법하다.

이미 SBS 뉴스의 간판스타로 자리잡은 임광기 최희준 신동욱 기자, 거기다 올해 신입 경력기자로 입사한 이병태 기자와 총지휘를 맡은 홍성욱 차장대우까지 '기동취재 다이얼 2000'을 책임지고 있는 기동취재팀

은 얘기다.

그는 84년 문화방송에 입사한 이래 기자 생활 12년 동안 그 어렵다는 사회부 소속으로만 10년 가까이 생활해온 베테랑 사건 담당 기자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성격상 고발 형식의 취재가 많이 이루어질 기동취재팀의 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면면이지 싶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다보면 외부 압력과 신변의 위협을 수시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팀

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사기를 복돋워 주고, 흔히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나 형식적인 절차 등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죠.”

그는 자신이 힘을 다해 짊어지고 싶은 유능한 후배 기자들과 한팀을 구성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다. 다들 생기긴 둥글둥글 사람 좋게만 생겼는데

던 인물이다. 결국 그의 특종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로 인해 비리를 저지른 세금 공무원은 구속되고 그 땅은 국유지로 환수되는 성과가 있었다.

작년에 위조수표 사건을 특종 보도하면서 기자회견이 시상하는 이담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희준 기자. 경력은 아직 짧지만 그에겐 일반 기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취



취재 하나 만큼은 만족스러울 만큼 짹짹하게 해오는 미더운 후배들이라고.

먼저 광주지국에서 활동하다가 지역민방이 개국하면서 팀에 합류하게 된 임광기 기자는 93년 목포 일대의 국유지 3,000만평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매부자가 된 세금 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쳐 보도함으로써 SBS 뉴스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은 역할을 했

재거리도 잘 소화해내는 배짱과 패기가 있다. 공항에 난무하는 불법 영업택시, 일명 ‘히뿌리 택시’를 취재할 때도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취재 보도하면서 언제나 투철한 기자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한다는 평을 들었다.

반면 정교한 스타일의 심층취재가 장기인 신동욱 기자는 ‘탄광촌의 실태’를 심층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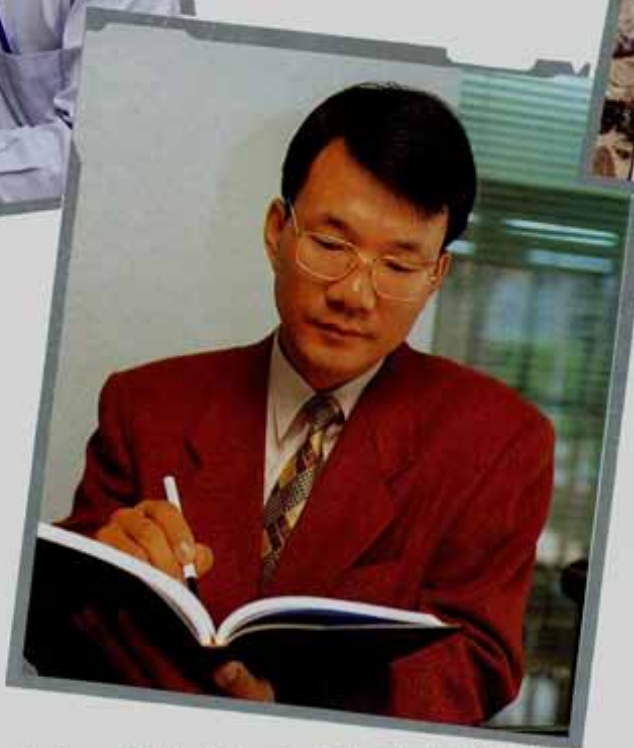


홍상욱

59년 출생. 성균관대 신방과를 졸업한 후 문리방송 기획부를 거쳐 91년 SBS에 입사했다. 현재 부도국 작성대우인 그는 기동취재팀의 총지휘를 맡아 10년 가까이 기획부 소속 행행량 사건 담당기자로써의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임강기

61년 출생. 중앙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전남일보 취재부를 거쳐 SBS 광주지국에서 활동하다가 지역민방이 개국하면서 기동취재팀에 합류했다. 93년 목포 일대 국유지 3,000만평을 알감으로 불법반이 매부처기 단 게우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쳐 SBS 뉴스의 위상을 한단계 올려놓은 역할을 했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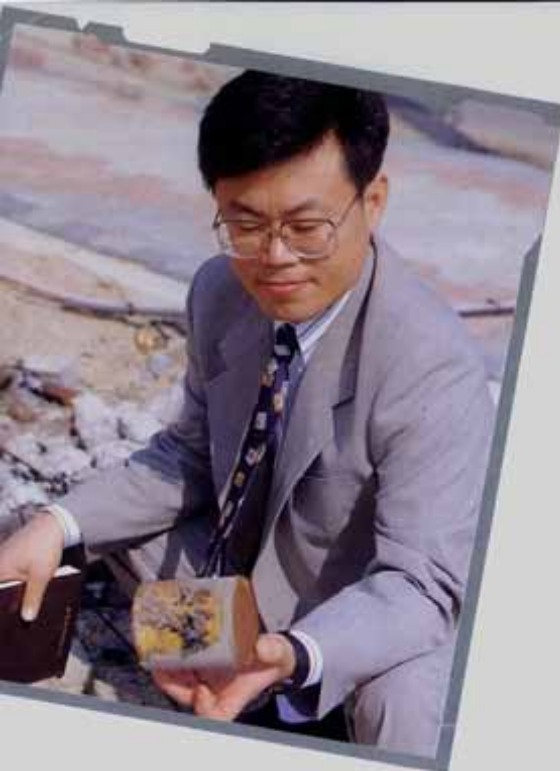
이병태

61년 출생.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90년부터 기획부 활동했다. 지난 3월 SBS에 입사한 그는 입사만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동취재팀에 합류. 기동취재팀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해 보도국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리포트상 후보에 오르는 등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발굴해내는 또 한 명의 재주꾼으로 통하고 있다.

또한 SBS라는 배에는 늦게 올라탔지만 기자 경력에 있어서만은 결코 뒤질 수 없는

이병태 기자. 그는 90년 전주 문화방송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올해초에 SBS로 옮겨오기까지 베테랑 사회부 기자로 자리를 굳혀왔다. 신입 경력기자 중에선 유일하게 기동취재팀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그에게 걸고 있는 주위의 기대 또한 높을 수밖에 없고, 흥



팀장 역시 이 기사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일반 개인뉴스는 그날 그날 취재하는 것이다보니 취재물의 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기사화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룰 수 없는 기사거리들도 산재해 있구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깊이 있게 취재함으로써 뉴스의 심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기동취재팀의 할 일입니다. 시청자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들과 함께 뉴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 얘기는 거짓부렁이 아니다. 기동취재팀은 시청자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보접수 전담요원까지 채용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주는 사건들이 있는 곳이

라면 어디라도 달려가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5월 8일 방송된 ‘기동취재 다이얼 2000’은 이런 기동취재팀의 의지를 잘 반영해주었다.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50여 만원밖에 되지 않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 물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문영리. 이곳에 한국 노동교육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때 아닌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70여 가구밖에 살지 않는 후미진 마을이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문영리 주민들은 2년 동안 식수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했던 것. 노동교육원과 광주군청에 수차례 진정을 해보았지만 이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바빴고, 결국 참다 못한 마을이장이 결국 SBS로 제보를 해왔다.

기동취재팀은 곧장 문영리로 달려갔고, 이 프로그램의 방송 직후 관계부처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하겠다는 응답을 받아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였다 하겠다.

그러나 기동취재팀은 이같은 고발성 기사에만 전념하진 않겠다고 말한다. 사실 요즘엔 고발성 프로그램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져 자칫 잘못하면 뉴스 전체의 성격이 고발성으로만 흐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실상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동취재팀은 앞으로 미담기사들도 많이 발굴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담기사의 주인공이 될 만한 선행자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담뉴스는 잘못 다루면 의도가 담길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말

이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을 엄선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아직은 어려움이 많다. 진짜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기사화되기를 극구 사양하기 때문. 지금까지 벌써 두 사람이 기동취재팀의 부탁을 거절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밝고 따뜻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 기동취재팀들은 그들을 화면 앞으로

모셔오는 데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진심이 그들에게도 통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같은 고발, 미담기사 외에도 기동 취재팀이 기동성을 발휘해야할 부분은 많다. 그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이들의 활약이 필요한 부분은 사회 전체에 불합리하게 퍼져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일 게다.

“보도의 목적은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한



칙혁준

66년생. 미국이대 법학대를 졸업했고 92년 SBS에 입사했다. 칙년에 위주수호 사건을 특종 보도하면서 기자협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력은 짧지만 믿돈 취재기록도 기쁜이 수취해내는 변호사 겸기로 돌돌 뭉친 시나이.

신동욱

67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의 동 대학원 보건학박사대를 졸업했고 92년 SBS에 입사. 정교한 스키일의 심층취재기 장기인 그는 '민정촌 싹'을 심종 보도역 보도국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리포팅상 후보에 오른 동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발굴해내는 심도 깊은 전문가로 통한다.



제보요령

기동취재 다이얼2000

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1. 제보는 일단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때 제보를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흥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2. 제보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다. 제보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육하원칙에 맞춰 차근차근 얘기해야

빠르고 정확한 취재가 이루어진다.

3. 뉴스로 활용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가
따르므로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 물론 원한다면 익명성은 철저히 지켜준다.
4. 마지막으로 제보 수단은 다음과 같다.
전화 : 369-2000(다섯 통화까지 동시 제보 가능)
팩스 : 369-2039
컴퓨터 통신 : 천리안과 하이텔 'GO DIAL'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 예를 들면 임금구조 문제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다루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대안 없는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일절 지양하겠다는 생각이다. 될 수 있는 한 밝은 면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건설적인 비판의 눈길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

민방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SBS 보도국 전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더불어 기동취재팀에게 걸고 있는 시청자들과 동료 기자들의 기대가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팀이 기동성을 제대로 발휘하자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자들의 눈과 귀는 보고 듣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자로 쓰시고자 한다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여러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십

시오."

마지막으로 기동취재팀이 시청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휘슬 블로어'라는 말이 있다. 고발정신이 투철한 미국 시민을 이르는 말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제보와 고발을 통해 시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민정신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이다. 물론 미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는 이들 께어 있는 휘슬 블로어들의 역할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아직 이런 휘슬 블로어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진 신문고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일정한 출퇴근 시간도 없이 취재에 전념하고 있는 기동취재팀에겐 바로 이런 께어있는 휘슬 블로어들의 제보와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다. 5

글/임유정·자유기고가
사진/신동준

1995년도 지원금 전달식

1995. 5. 26. 서울대학교 대강당



瑞岩學術獎學財團

95년도 지원금 전달식 개최

서암학술장학재단(이사장:윤세영)은 5월 26일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이수성 서울대 총장, 홍일식 고대 총장, 박 흥 서강대 총장, 엄영일 포항공대 부총장 등 각 대학교수 언론인 대학원생 대학생 중·고등학생 국민학교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95년도 지원금 전달식 및 제6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에서는 교수 10명, 언론인 6명, 대학원생 11명, 대학생 6명, 고등학생 45명 등에게 연구지원 및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20개 초·중·고등학교에 서암도서 기증식도 함께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세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과 기술로 대변되는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사업을 더욱 확대 전개함은 물론 차세대의 꿈과 비전을 가꾸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BS 윤세영 회장이 설립한 서암학술장학재단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교수,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지원하여 노벨상에까지 도전하는 세계적인 석학과 인재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장학재단은 그동안 장학사업, 국내 석·박사 연구 지원사업, 교수 해외연구 지원사업,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서암도서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의 올해 사업계획 예산은 총 12억 6,200만 원이며, 9월부터는 저개발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학생 국내 장학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의 95년도 교수 및 언론인 해외연구 지원부문과 국내 석·박사 연구 지원부문, 일반 장학부문, 서암도서 기증교에 선발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수 해외연구 지원 부문

김남두(서울대 철학과 부교수),	이병찬(경원대 경제학과 부교수)
이상호(고려대 응용동물학과 부교수),	김성근(서울대 화학과 부교수)
정진욱(포항공대 물리학과 부교수),	류동수(충남대 천문우주과학과 조교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부문

서장우(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남(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근대(경희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전석호(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송충식(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정세용(한겨레신문 정치부 차장)
엄지도(조선일보 국제부 기자),	이동우(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김천홍(SBS 사회부 차장),	정순영(SBS TV제작국 프로듀서)

국내 석·박사연구지원 부문

오건호(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운성(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하동원(서울대 외교학과 박사과정),	성재영(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
전간상(서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곽준명(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최만수(포항공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황인덕(경희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전성진(한양대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이육희(부산대 분자생물학과 박사과정)
김대연(경상대 화학과 석사과정)	

일반장학 부문

(대학부)

정영훈(서울대 법학과)
 한지용(서울대 법학과)
 김기용(연세대 토목공학과)
 김성희(연세대 경제학과)
 김진경(연세대 교육학과)
 전효진(한국외국어대 이란어학과)
 <고등학생>
 서울고교 구광림 외 44명



서암도서 기증교

관인국교, 교동국교, 북흥국교, 동송국교, 원삼국교, 자라국교, 장생포국교, 청명중학교, 강릉고교, 김천고교, 김화고교, 김화공교, 마산고교, 신철원중교, 안동고교, 울산공교, 철원고교, 철원여고, 춘천고교, 흥천고교



「생방송 TV 가요 20」의 MC

이훈·재키림

찾아온 행운을 빛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청춘

“관

잖아. 왜 물어?”

「생방송 TV 가요 20」의 방송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만난 재키림.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잘했어. 이제 MC 시작한 지 두 주밖에 안됐는데 뭘 그래!”

“제가 프로듀서였을 줄 알았는데…”

재키림은 솔직한 것이 흠이다. 그는 호불호(好不好)가 분명한 연예인이다. 그날의 눈물 사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다섯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나가, 유럽과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일본과 홍콩에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살아온 그에게 「생방송 TV 가요 20」에서의 작은 실수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사실 재키림을 MC로 기용하기까지 필자는 며칠밤을 고민 속에서 있어야 했다. 전임 MC 이 분이 차지했던 자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후임 MC를 선정하는 작업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생방송 TV 가요 20」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 때문





가슴에 불을 지른 김희애, 청순함의 전형을 보여준 최수지, 영화쪽의 강수연, CF스타에서 영화로 진출한 심혜진, 시원시원하면서도 농익은 모습을 보여준 이휘향, 그리고 백치미의 이보희, 섹시스타 나영희, 김진아 등이 계보를 이어가며 남성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80년대말 최진실의 등장. 오래 지속될 것 같던 최진실의 1인 체제는 슈퍼모델 이소라의 등장으로 쉽게 와해됐다. 이소라는 데뷔와 동시에 폭풍을 몰고왔다. 하지만 견고하기만 하던 이소라 시대는 이어 등장한



에 자천타천의 후보들이 1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보니 잠이 오질 않았다.

하지만 결론은 의외로 쉽게 나버렸다. 어느 순간 재키림이 필자 가슴에 너무도 강하게 각인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원인 제공자는 그룹 물라의 여성 멤버 김지현이다. 요즘 장안 못남성들의 가슴을 설레임으로 가득 채운 김지현을 보는 순간 묘하게도 재키림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실 두 사람은 성장과정이나 생김새, 분위기가 판이하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졌던 걸까?

따져보면 언제부턴가 우리 연예계에는 남성들의 가슴을 사로잡은 여자 연예인의 계보가 형성되어왔다.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로 대표되는 트로이카 체제의 와해 후, 「장희빈」을 통해 요염함을 내비친 이미숙, 19세의 나이에 드라마 「여심」을 통해 못남성의

채시라와 고현정, 신세대 스타 심은하 신은경 고소영 등에 의해 주춤하고 있다.

이렇듯 울망졸망 키재기 경쟁을 하던 이들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그룹 물라의 김지현이다. 그는 요즘 장안의 최대 화제가 되고 있다. 섹시하면서도 쉽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만들어진 스타는 관심 밖인 것이다. 문제는 다음 계보에 오를 스타가 누구인

가이다. 프로듀서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다음 후보 중 하나로 재키림을 택했다. 그의 가슴속에 내재된 끼와 신선미, 그리고 능력에 점수를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스타 탄생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또 한 사람의 MC 이 훈의 선택과정은 재키림보다는 수월했다. 그것은 전임 MC 김호진의 퇴장 후 이 훈의 발 빠른 행보 때문이었다. 문화방송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를 데려온다는 사실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본인이 너무 강력하게 MC를 희망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특히 그가 대학생이라는 점과 텔런트라기 보다는 쇼, 오락 파트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이 맘에 들었다. 하지만 그와 두 번의 생방송을 하면서 필자는 그동안의 선입견을 모두 버려야 했다.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던 제작진에게 그는 섬세하고, 부드러운면서도 남성미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재키림을 너무 잘 돌봐준다. “누나”라고 부르지만 마치 오빠 같이 행동한다. 순발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방송중 재키림이 막히면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분위기를 끌어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제작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나이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최민수나 최재성이 보여주는 티프가이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차라리 한없이 선해 보이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효용섭이나 이병헌에 가깝다. 이 훈에게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활력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섬세함이다. 겉보기와 달리 그는 무척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다. 그는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 다음 행동을 무리없이 취해낸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MC로서는 더



없이 좋은 장점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단점이 많다.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인지함의 결여, 진행의 미숙함, 뜻심의 부족함, 제스처어의 어색함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젊다. 그리고 밝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도 있다.

「생방송 TV 가요 20」의 새 MC인 이훈과 재키림. 그들은 전국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SBS호’에 몸을 실었다. 그것도 새롭게 탈바꿈한 최고의 쇼 프로그램 「생방송 TV 가요 20」에. 아마도 두 사람은 올 상반기 가장 운이 좋은, 그리고 가장 빛이 나는 인물이 될 것이다. **S**

글/이기진-TV제작국 예능
사진/신동준



「아스팔트 사나이」의 동석 역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가볍지 않은 깊은 눈빛

95년을 달린다

1973년생, 187센티미터의 큰 키. 영화 「구미호」의 주인공. 이것이 「아스팔트 사나이」에 정우성을 캐스팅했을 당시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전부였다. 그러나 「아스팔트 사나이」가 방송되기 전부터 매스컴에서는 그를 에픽스타로 칭찬하며 떠들썩하게 보도했는데 이렇듯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그의 가능성은 그와 함께 한 촬영기간 동안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키가 크면 사람이 성급하다. 정우성은 요즘 보기 드문, '가볍지 않은 젊은이'다. 동치될 입을 열지 않는 과묵함, 과묵한 만큼이나 깊은 생각을 가진 그는 촬영중에도 소라바어 옷은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때론 답답할 정도지만 그는 키가 크면서도 성급치는 커녕 가볍지 않은 무게가 느껴지는 젊은 연기자다.

정우성은 눈빛이 살아있다. 때론 강렬하게, 때론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들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무서움, 포근함, 그늘진 눈빛에 숨겨진 깊은 슬픔. 정우성은 눈빛으로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연기자다.

정우성은 개성이 있는 연기자다. 매스컴에선 그를 '이정재와 최민수를 합쳐놓은 듯한 남자'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좀더 깊이 그를 알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임을 실감할 것이다. 정우성은 이정재도 아니고 최민수도 아니다. 둘은 '이정재 + 최민수'는 더더욱 아니다. 정우성은 그 누구도 아닌 정우성일 뿐이다. 그만의 색깔과 분위기를 자아내는 개성시대의 개성있는 연기자. 정우성은 바로 그런 연기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우성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는 크다.

이랜드와 투유 초콜릿의 CF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영화 「구미호」에서 연기자로 데뷔한 후 텔레비전 드라마 첫 데뷔작인 「아스팔트 사나이」에서는 형 동준(이병헌 분)만을 챙겨주는 아버지(박인환 분)의 출대에 낙담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뒤 갖은 고생 끝에 카레이스체의 정상에 오르는 동석 역을 맡았는데 원칠한 키에서부터 반장기 있는 외모까지, 그는 벌써부터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95년의 젊은 유망주! 정우성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는 것은 그에게 대기(大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정

우

성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앞서가는 감각파

프로듀서의 세계 15



이장수

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만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방송이기 때문이다. 방송이란 어느 수준에선가는 타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장수란 연출자도 스스로 타협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자기 작업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프로듀서처럼 좀체로 타협을 모르는 고집쟁이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표 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어느 면에서든 끊임없는 타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본이든 연기가든 카메라든 완벽이 있을 수 없다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종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프로그램 제작이란 혼자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스태프와 연기자의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누가 더 쉽게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것인데 쉽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프로그램이 예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사람이다. 그만큼 그는 고집스레 자기 일에 몰두하고 고집스레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장수 프로듀서는 줄곧 서울에서 자란, 그래서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만든 프로그램도 늘 도시적이다. 대학시절 연극에 심취해 연출에 빠져든 것이 그의 인생행로를 전공과 무관하게 바꿔놓았다. 물론 그의 아버지 역시 「0시의 다이얼」을 연출했던 라디오 프로듀서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송이란 매체가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았던 것도 그가 프로듀서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화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드라마 연출을 배운 그는 박 철이란 경험 많은 프로듀서를 위에 두고 「그 여자」를 연출하면서 지휘봉을 잡았다.

드라마 프로듀서 11년, 조연출 기간을 빼면 실제 연출한 기간은 얼마 안되지만 이장수 프로듀서 만큼 화제를 뿌린 프로듀서도 드물다. 특히 SBS에 입사한 뒤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은 늘 방송가의 화두였다. 「금잔화」 「모래위의 욕망」 「도깨비가 간다」 「춧불 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또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같은 선배 프로듀서들과 함께 '수위'에 올라있다.

그래서 그의 연출 스타일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무언가 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화제를 뿌린 것만큼 높은 시청률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것도 스스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출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



화제를 뿌린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방송사란 좀 떠들썩해야 잘돼가는 집안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가 뿌린 화제의 대가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방송위원회의 제계를 받아 연출하던 프로그램에서 도중 하차하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주의나 경고를 받은 누계가 10년 이상 프로그램을 연출한 '하늘

면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지는 다 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시청자도 납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올곧은 주장이다.

집요하게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프로듀서 이장수는, 그래서 지금의 프로그램 제작 현실이 불만스럽다. 방송사가 돈을 안

들이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드라마가 일상적인 이야기 수준에 묻혀있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별 생각없는 드라마가 판을 치고 스토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시청률 지상주의가 내용과 상관없이 눈요기 거리로 흐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다분히 영화에 가깝다. 그래서 너무 무겁고 진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는 그 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어차피 텔레비전 드라마는 소프 오페라(Soap Opera)와 TV 영화



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은 그중에서 TV 영화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소프 오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싶다는 부연을 덧붙인다.

천재는 99퍼센트의 노력과 1퍼센트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1퍼센트의



영감이다. 그의 연출이 매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가 1퍼센트의 영감이 남달리 발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노력하는 연출가란 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컬트 비슷하게 대사를 절제하고 영상으로 승부하려는 그의 노력은 때론 브라운관에 과잉으로 나타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프로그램이란 스스로 시청자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서 그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지, 말초적으로 당장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싸구려 주간지를 보는 듯한 프로그램이 난무하는 현실이 그에게는 늘 못마땅한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이란 결국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만족해야 할 것이고 또 만드는 사람이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만족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겸손에서 오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족을 느껴가면서 완성도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만큼 제작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에 드라마 한 편씩을 찍어내야 하는 시간이 그렇고 돈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프로그램의 구성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한다. 구성기간이 짧다 보니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결국 프로그램을 만들고나면 스토리 전개가 어색하고 출연자의 성격은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고려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 완성도는 고사하고, 엉터리

이장수 프로듀서 연보

1960년 4월 5일 서울 출생
 1972년 김남국민학교 졸업
 1975년 상도중학교 졸업
 1978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2년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1984년 문화방송 입사
 1991년 SBS 입사
 1992~ 1994년 「정실홍실」 「사랑의 풍차」 「금지화」 「모래위의 욕망」 「사랑이라 부르는 것」 「쫓겨가는 사람들」 「도깨비가 간다」 등 연출
 현재 「아스팔트 사나이」 연출
 TV제작국 드라마 차장대우

● 대통령상(「전원일기」), 한국노랫말 가사 대상 아름다운 노랫말상(「꼬마야」 작사), 휴스턴 영화제 월드페스트 특별상(「쫓겨가는 사람들」) 등 다수 수상
 저서 「스무살까지만 살고싶어요」(89년)

같은 프로그램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짧은 시간과 부족한 제작비를 스스로의 노력과 영감으로 커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가 다분히 탐미적인 프로듀서라는 것은 그의 과외 활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하면서 시작되는 「꼬마야」라는 김창환의 노래가 그의 작품임을 기억해둘 필요도 있겠다. 그는 이 노래로 한국 노랫말 가사 대상 아름다운 노랫말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쫓겨가는 사람들」로 휴스턴 영화제 월드페스트 특별상을 받기도 했으니 이제 11년째를 맞는 그의 연출도 어느덧 물이 오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물오름이 방송의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꽃 피울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S**

글/박주필·빙승작가
 사진/정분경

잠깐만!



SBS 창사 5주년 기념 세계로가는 퀴즈

SBS는 창사 5주년 기념으로 스웨덴에서 핀란드까지 사상 초유의 퀴즈쇼를 펼치는 「세계로 가는 퀴즈」를 마련한다. 국내 1차 예선대회는 올림피아공원내의 잠실경문장에서 6월 6일 오후 1시에 시작되어 100여 명을 선발하고, 다시 국내 2차 예선대회는 6월 11일 SBS본사 앞 광장에서 개최해 최종 20명을 선발하여 해외 본선의 출전 기회를 준다. 참가 접수는 6월 5일까지 SBS 1층 로비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해외여행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 국내 1차 예선 : 6월 6일 오후 1시 잠실경문장(올림픽공원 내)
- 국내 2차 예선 : 6월 11일 SBS 본사 앞 광장
- 해외 본선 : 스웨덴, 핀란드





SBS 광장

「사랑의 효잔치 - 제5회 고부노래자랑」

시어머니께는 효를, 며느리에게는 사랑을 심어준 훈훈한 자리

「시」 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늘이 맺어준 악연이라는 등 '따가운 봄별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별엔 딸을 내보낸다'는 등 하는 옛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구석이 많다. 괜히 얼 굴만 마주쳐도 입술이 뻑죽 튀어 나오는 게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솔직한 모습일 듯 싶다. 소원하고 때로는 걸그러워지기 십상인 이들 고부 사이에 따뜻한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아온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의 시선을 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고부노래자랑」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SBS 라디오가 개국되면서 「그대 이름은 여성」 특집 방송으로 마련되었던 것이 이제 는 어엿한 가정의 달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더욱이 올해의 「고부노래자랑」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 민방이 동시 개국되면서 SBS가 전국방송의 닷을 울림과 발맞춰 대전 대구 이리 홍성 등 각 지역에서 폭넓게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저녁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SBS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사랑의 효잔치 - 제5회 고부노래자랑」. 말 그대로 시어머니께는 효를, 며느리에게는 사랑을 심어준 따뜻한 시간이 었다.

‘상도동 포도나무집 단비네 화이팅’

‘가자 호주로, 1등! 우체 이런 일이’

‘X세대 시어머니 강창수 화이팅’

오페 부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화려한 플래카드가 가득 메워진 객석, 무대에 선 어머니와 아내를 열심히 응원하는 가족들로 SBS 등촌동 공개홀은 내내 뜨거웠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나쁘면





「고부노래자랑」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비해 신청자들이 적은 것도 그만큼 고부간의 갈등이 여전하다는 증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고부노래자랑」에 나온 사람들은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회 대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고부노래자랑」을 주간해온 SBS 라디오의 박동주 프로듀서의 얘기다. 한번은 올케와 어머니 사

이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누이가 대신 전화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는 귀띔한다. 그것은 바로 「고부노래자랑」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사랑의 전령사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이제진 박정숙의 사회로 진행된 제5회 「고부노래자랑」은 본선에 오른 열두 팀의 며느리들이 「모정의 세월」을 합창하면서 막이 올랐다. 어느 때보다도 노래 실력이 탄탄





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뒷얘기가 있을 만큼 참가자들의 실력은 수준급이었다.

특히 첫번째로 무대에 오른 서정길 씨와 이성주 한 옥, 두 며느리가 부른 「백학」은 좌중을 휘어 잡기에 충분했다. 우리 드라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SBS 특별기획 드라마 「모래시계」의 삽입곡 「백학」에 우리 노래말을 입히고 편곡하는 정성까지 보인 이 가족은 결혼 못한 시동생이 공개 구혼장을

띄우는가 하면 시아버지와 아들 형제는 즉석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아카펠라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4대가 한 집에 사는 이 가족은 결국 대상을 거머쥐었다.

일곱 팀이 경연한 1부가 끝나고 막간에 찾은 분장실은 여전히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였다. 며느리들의 노래에 맞춰 신명나게 춤만 추었던 일곱 번째 시어머니 윤덕순 씨에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잘 지내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 보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부모가 며느리 입장이 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며느리가 손주를 때릴 때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있어서 저러나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것, 그게 바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고부노래자랑」이 며느리와는 처음으로 노래해본 경험이라는 윤덕순 씨는 좀처럼 며느리와 같이 노래할 기회가 없는 게 무

척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탓에 이 행사가 더욱 소중한고 고맙다고 덧붙이기도.

입혼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현역 사진작가로 맹활약중인 최순진 씨와 두 며느리는 「만남」을 열창해 금상인 다복상을 차지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이들은 비행기로 왔다갔다 하며 열심히 연습한 열성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모님 사랑을 한사위 덕에 금상이란 행운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다.

“며느라를 처음 보고 80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저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포옹

똑같은 옷을 맞춰입고 「여름」을 흥겹게 노래했던 박용숙 배혜란 김희자 장윤경 씨한테는 동상인 사랑상이 돌아갔다. 세 며느리를 양 옆에 거느리고 서로 눈빛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호뭇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것들」을 부른 안종소 씨와 장희숙 최경숙 조정남, 세 며느리는 노래 못 지않게 아름다운 외모로 눈길을 모았다. 부모님은 흥성에, 아들 내외는 이리 부친 서울에 각각 흩어져 사는 이 가족은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과 자랑이 남달라 부러움을



을 하지 뭐니까? 그래서 100점을 줬버렸죠. 포옹이란 게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할 수가 없죠.”

같은 김혜 김 씨에 또 같은 사면과 며느리를 맞은 김영자 씨의 얘기다. 김영자 씨와 며느리 김은영 씨는 「그날」을 불러 은상인 화목상을 받았는데 이날 출연한 팀 가운데는 유일하게 막내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가족이었다.

사기도 했다. 그런 까닭인지 이 가족은 인기상을 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인생 선후배 사이입니다.”

맨 마지막에 참가했던 조신자 씨의 독부러지는 말에 객석에선 절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인생 선후배’란 말은 구태여 부연 설명이 없어도 너무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이리라. ‘왜 그렇게 생



각하지 못했을까'하는 자기 반성이 모두를 사랑으로 이끄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삼대 사대가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보여준 화목한 그림이 정말 좋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요 슬프고 애잔한 노래보다는 밝고 경쾌한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거죠.”

심사를 맡은 작곡가 김희갑 씨의 찬평. 그와 더불어 심사를 도왔던 시인 황금찬 씨는 “오늘 시어머님의 마음과 며느님의 마음 사이에 사랑으로 수놓은 다리가 놓였다”며 아름다운 시어로 심사평을 마무리 지었다.

시종일관 사랑으로 넘쳐났던 「제5회 고부

노래자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손을 쥐고 따뜻함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고부들, 아니 인생 선후배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LA 같은 미국 교포 사회에서도 「고부 노래자랑」을 열 계획입니다. 아울러 십 년을 맞게 될 즈음엔 그동안 출연했던 분들을 모시고 왕중왕전을 마련할까 합니다.”

박동주 프로듀서가 조심스레 내비치는 계획들이 많은 이들이 참여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길 기대한다. 「고부노래자랑」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하늘이 맺어준 악연에서 사랑으로 뚝뚝 뚫힌 아름다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게 제작진과 시청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싶다. **S**

글/박경희 · 자유기고가
사진/서형식





6월중 등촌동 SBS 공개홀의 공개방송 일정

■ 이 일정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1 SBS 콘서트 음악세상

금 2 TV 전파왕국

토 3 기쁜 우리 토요일

일 4 생방송 TV 가요 20

월 5 좋은 친구들

화 6 점프 챔프

수 7 TV 전파왕국

목 8 SBS 콘서트 음악세상

금 9 TV 전파왕국

토 10 기쁜 우리 토요일

일 11 생방송 TV 가요 20

월 12 좋은 친구들

화 13 점프 챔프

수 14 TV 전파왕국

목 15 SBS 콘서트 음악세상

금 16 TV 전파왕국

토 17 기쁜 우리 토요일

일 18 생방송 TV 가요 20

월 19 좋은 친구들

화 20 점프 챔프

수 21 TV 전파왕국

목 22 SBS 콘서트 음악세상

금 23 TV 전파왕국

토 24 기쁜 우리 토요일

일 25 생방송 TV 가요 20

월 26 좋은 친구들

화 27 점프 챔프

수 28 TV 전파왕국

목 29 SBS 콘서트 음악세상

금 30 TV 전파왕국



나도 한마디

SBS의 전국 네트워크화로 문화적 소외감이 극복되는 기쁨

“야! 나온다.” 드디어 아내의 얼굴이 활짝 떠졌다. 우리 아파트 공청 안테나의 고장으로 대전방송이 개국된 후에도 며칠을 기다려야만 했던 우리 부부는 SBS 프로그램이 나오자 아이들처럼 좋아했다.

아내는 시집오기 전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서울덕’. SBS를 못 보게 된 것을 서운해 하던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대전에서 살던 나의 감회는 좀 달랐다.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중심이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서울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방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대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더욱 부추긴 것이 SBS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이제 전 국민이 SBS를 공유하게 되면서 최소한 방송면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없어졌고 지방 사람으로서 느껴왔던 문화적 소외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SBS의 전국 네트워크화로 SBS는



SBS는 시청자와 함께 만듭니다

SBS-TV와 라디오를 시청하면서 느낀 점이나 방송 전반에 관한 의견, SBS에 바라는 의견, 「SBS 매거진」을 읽고 느낀 점을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글은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시길 때는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마감은 **매달 1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서울방송 홍보부 「SBS 매거진」팀
(우편번호 150-777)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고 아내는 보고 싶던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나는 문화적 소외감을 위로받게 된 것이다.

전국민과 함께 하게 된 SBS가 이번에 개국한 지역 민방들과 함께 방송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데 첨병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S**

정홍진·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60-1

한울아파트 111동 1604호

신속한 지역 정보 전달과 진보적인 방송으로 전국민의 SBS가 되길...

5월 14일. 한국 대 가나 올림픽 대표팀간의 잠실 주경기장 경기를 이곳 부산에서도 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듣는 SBS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목소리가 낯설기는 했지만 새로운 각도, 독특한 진행방식에 나의 귀는 솔깃해졌다.

바야흐로 SBS 방송이 지역민방을 타고 드디어 전국방송화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기껏해야 유선으로 흐른 화질의, 그것도 1~2주 후에서나 SBS 방송을 접할 수 있었던 지방민으로서는 반갑기 그지 없다.

사실 많은 지방사람들은 SBS의

전국화를 기대해왔다.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기존의 채널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쌓일대로 쌓여 SBS만이 보이던 신속한 정보 전달력과 공정한 보도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에 그 해소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더불어 SBS는 지역민방들의 모델이기도 했는데 SBS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멀리서만 바라봤던 SBS에 대해 감히 평가를 하자면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SBS 8 뉴스」나 「모래시계」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특성화된 외화, 신속한 스포츠 중계는 구체적인 예들이며 하나같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일으켰던 프로그램들이다.

SBS의 전국 방송화는 지역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대중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오랜 시간 준비해오고 기다려왔던 오늘이 아닌가. 빠른 시간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SBS의 역량에 기대하는 바이다. **S**

박병률·부산시 동구 범일 6동 1492번지



「옥이 이모」를 보고

“고향의 흠내음을 만끽하는 시간,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는 진한 감동”

사 람들은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서 지난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지나치게 과장한 신세대 사랑을 논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드라마에 식상해져 채널을 돌리기가 겁이 날 정도였다.

화려하고 과장된 드라마 속에서 SBS 주말극장 「옥이 이모」는 그래서 참으로 반가웠다. 오랜만에 우리의 옛모습,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뜻밖하고 흠냄새 나는 드라마였다. 여자들이 두꺼운 화장과 치렁치렁 걸치고 있던 액세서리를 모두 벗어 던지고 깨끗하게 세수를 했을 때의 기분이랄까?

60년대초 경상도의 한 농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옥이이모」는 억척스런 경상도 여자로 변신을 시도한 옥소리와 구수한 외모의 완벽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어린 상구를 비롯해 주 현 천호진 김인태 김인문 송채환 등 연기와 배우들이 합세하고 있어 오랜만에 탄탄한 구성과 인간미 넘치는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다. 그리고 번데기 장사, 뽕튀기 장사, 보자기로 짠 끈 목은 책가방, 팽이 등 드라마 배경에 걸맞는 소품과 의상 등은 젊은 세대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정겹게 다가온다.

동네 재지기의 아들 종략과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에 빠진 옥이 이모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윈 뒤 무척이나 이모를 따르는 상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사뭇 궁금해진다.

철없기도 하고 또 순수한 어린이다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상구의 내레이션은 특히 「서울 뚝배기」 「서울의 달」 등의 서민 드라마에서 구수한 대사를 보여주었던 작가 김운경의 대사의 묘미를 한껏 맛볼 수 있다. **S**

김민정·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 아파트 113동 1101호

「아스팔트 사나이」를 보고

“자동차에 미래를 건 젊은이들의 강렬한 투지가 인상적이다”

「모래시계」에 이은 SBS의 또 하나의 야심작. 「아스팔트 사나이」는 D-20부터 예고 스포트를 통해 이렇게 다가왔다. 잠깐 동안의 맛보기 방송이었지만 빠른 템포를 타고 흐르는 스피디한 화면 전개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첫회 방송이 시작되는 날, 극의 시작을 장식했던 이병헌의 내레이션, “전 지금부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는 나의 이런 기대를 호기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이병헌(동준 역)과 정우성(동석 역)을 두 기동으로 전개되는 이 드라마는 가히 남성 드라마라 할 만큼 힘이 있고 강렬했다. 물론 거기에는 영화 필름을 사용해서 기존의 드라마와 차별성을 두었다는 사실도 한 몫을 했다. 동석의 가슴속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불타는 정열을 슬로우 화면으로 처리한 것에서부터 기차길에 다리가 걸린 아버지의 안타까운 순간을 설명 없이 영상으로 처리한 것 등 연출자는 시청자로 하여금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뜨리게 했다.

거기에 하나 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김수미(마담 역)의 연기이다. “오 마이 갓”을 외치며 한국어와 영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그의 연기가 이 드라마에 맛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옥의 티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으로 흐르는 테마 음악은 「모래시계」를 연상케 했고 중간에 동준과 송이의 눈빛이 교차하는 장면의 클로우스 업도 태수와 해린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겨우 몇 회분을 방송한 지금, 어느새 「아스팔트 사나이」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수, 목요일 밤을 기다리게 하는 걸 보면 이 드라마가 「모래시계」에 이어 SBS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는 선부른 예감이 든다. **S**

남경아·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정림아파트 A동 204호





「태진아·송선경의 가요 리서치」를 듣고

“가요의 흐름 속에 이웃의 진솔한 사연이 함께 어우러져
두 배의 즐거움을 준다”

태진아·송선경의 가요리서치」는 프로그램명 그대로 가요를 조사 연구한다는 데에 호기심을 갖고 또 그 결과가 궁금하기도 해서 점심 시간에 듣기 시작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이전에는 일요일 하루만 방송되어 집에서만 듣다가 요즘은 직장에서 매일 들을 수 있어 무척 반갑다. 유머감각이 풍부한 인기가수 태진아와 송선경 아나운서의 진행도 프로그램명 만큼이나 신선감을 안겨준다.

‘리서치’란 재미있는 작업이지만 결코 편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진아·송선경의 가요 리서치」는 가요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예인 운전기사 일반 청취자들까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이야기를 리서치해준다. 그래서 더욱 재미있다.

이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듣다보면 귀로 듣는 연애 매거진 같다. 또 각 코너의 성격이 독특해서 차별화가 돋보인다.

특히 1부 마지막에 청취자들이 보내온 편지 코너인 ‘우리집 이야기’에서 우리 이웃들의 진지하고 주옥 같은 사연을 들으며 가슴 뭉뚱함을 느끼곤 한다. 또 3부에는 우리들과 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운전기사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노래 솜씨도 들어보고 그들의 애환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코너 ‘운전석 노래방’이 있어 승객과 운전기사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무튼 「태진아·송선경의 가요 리서치」를 청취하다보면 가상 리서치, 시사 리서치, 가요평, 세태풍자 등과 함께 가요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취자들이 선택한 것을 제작진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느낌이 들어 청취자가 주인인 듯한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욕심을 낸다면 앞으로도 계속 청취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더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

SBS



영화 · 영화전문잡지 「키노」와 「씨네 21」 정간에 부처
가요 · 대중음악계에 중요만 위치를 차지하는 '기획자 시대'
연극 · 연극 대사의 완전한 트러피를 버린다
광고 · 남편따라 꼭 맘께 보고 싶은 부엌광고





이재훈·영화평론가

그리는 얘기로는 4, 5년 전부터 급속히 번져나갔던 소형 영화 공간이 쇠퇴해가고 있다고 한다. 일반 극장이나 국내 출시 비디오에서 구경할 수 없는 고전이나 예술 영화들을 외국에서 구한 LD나 비디오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이들 소위 '한국식 시네마테크'들은 영화에 대한 지식욕에 불타는 젊은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었다. 특히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외국의 영화 이론들을 소개하는 장(場)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평적 안목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빌딩의 지하실이나 허름한 사무실을 빌려쓰기 일쑤였던 이들 영세한 소형 영화 공간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른바 강남의 '부유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고급 영화방'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입 LD와 비디오로 라이브

영화전문잡지 「키노」와 「씨네 21」 장간에 부쳐 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담은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기대



러리를 꾸미거나 번듯한 사무실이나 혹은 평수 넓은 자기 방에다 고급 영사시설을 갖춰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저류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동안 움지에서만 논해지던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보다 공개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 좋은 작품들을 뿌연 복사판 비

디오가 아니라 영화관에서 필름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늘게 된 추세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부유층의 영화에 대한 호사스러운 접근은 거칠게 말하면 '차별'을 통해서만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대중화의 이면에 늘 따라다니는 한 경향일지 모른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영화(또는 영상)전문 잡지를 표방하고 나온 「키노」와 「씨네 21」의 창간은 그 시의적절함만으로도 주의를 끈다. 이 잡지들은 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을 대중적으로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동안 영화잡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10대들을 겨냥해 배우 중심의 가벼운 얘기거리를 즐겨 싣는 연예잡지 성격을 강하게 띠어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준있는 영화잡지를 추구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다분히 '동인지'적 성격을 띠거나 아니면 느슨하고 안일한 편집으로 폭넓은 독자층에 파고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키노」와 「씨네 21」은 진지하게 영상문화를 다루면서도 '대중성'을 아울러 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주간으로 발행하는 「씨네 21」은 한겨레신문이라는 이름이 전해주는 선명한 이미지에다 일주일 단위로 영화계의 흐름을 쫓기 때문에 이슈를 순발력있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4호가 지 나온 현재까지만 살펴본다면 매호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치열함이 부족해 다소 밋밋한 게 흠이지만 '악센트'만 보장한다면 한국 영상문화의 길잡이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광적인 숭배자들을 갖고 있을 정도의 스타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편집장으로 있는

「키노」는 창간호가 나오자마자 서점마다 책이 동날 만큼 대단한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잡지는 영화에 관심있는 '고상한' 독자들의 정보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기존의 '연예지'적인 영화잡지를 구독하던 감수성을 가진 10대들에게도 어필하는 편집방향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키노」가 물고은 돌풍은 당분간 율간 영화잡지 시장에서의 독주를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유려하지만 의미의 전달이 애매모호한' 정성일식의 문체가 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읽는 이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흠이라면 흠이다.

우리가 「키노」나 「씨네 21」의 창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땅의 올바른 영상문화에 대한 갈증 때문이다. 그동안 영화 저널리즘은 관객과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고 옥과 돌을 가려주는 일을 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연줄이나 인맥,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 한다는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영화적인 '소신'을 버리는, 관객이나 독자를 자신의 문화적 권력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뜻있고 사명감으로 똘똘 영화학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오염은 서서히 견혀가고 있다. 「키노」나 「씨네 21」이 서 있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젊은이들의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을 어스름한 공간으로부터 드넓은 마당으로 끌어내 마음껏 뜻을 펼치도록 고무하는 한편 영화라는 '예술'이 자기 패쇄적이고 현실도피적인 '마취제'가 아니라 문화적 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보이는 것이야말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다리는 영화잡지의 모양이다. 5



유세하·가요평론가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은 '기획자'다. 영화나 가요 등에서 히트작이 터져나올 때 감독이나 작곡가 혹은 배우나 가수 등 어느 한두 가지에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경우 '기획의 승리'라는 말이 가장 정답으로 꼽히면서 기획자의 역할이 제작진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소비자들에게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큼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씨네나 심재명 같은 영화 기획자들의 작품이 어떤 것이고 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 속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가요를 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지난해와 올해 가요계를 평정해버린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노이즈 등의 기획자 김창환의 이름을 한번쯤 거론할 것이다.

가요계에서 기획자 혹은 프로듀서의 개념은 단순히 음반 한 장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대중음악계에 중요안 위치를 차지하는 '기획자 시대' 시장 논리에 치우친 기획력, 새로운 창작 의욕이 아쉽다



아니라 음반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음악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전체적인 색깔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개념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자들의 역할과의 차이점은 이들이 가수나 작곡자에 앞서 음반 제작을 주도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로 히트작을 양산할 정도로 역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의 음반 제작자들이 가수나 작곡자가

가져온 음악을 들고 “되겠다”, “안되겠다”를 말하며 감(感)으로 음반 출반을 결정하던 데에서 벗어나 요즘의 음반 기획자들은 소비자 취향의 치밀한 분석부터 시작하여 음악 내적인 실현까지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보는 눈과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감을 함께 필요로 한다. 이런 경향 속에서 오히려 가요시장에서 스타의 의미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스타의 이름보다는 음악적으로 시류에 잘 맞는 음반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로 음반을 판매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인 시장 전략이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회사는 소비자들의 기호 속에 잠재해 있고 김건모 박미경 등의 목소리라도 잘 맞는 요소를 끄집어내 레게와 테크노뮤직 혹은 디스코, 리듬 앤 블루스, 힙합 등으로 풀어냈다. 물론 그 음악들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 강한 비판정신, 육설 등이 난무하는 파격성을 제거하고 그 안의 약동하는 리듬 감각만을 빌린 뒤 실연의 아픔, 친구에게 애인을 뺏기는 자의 묘한 슬픔 등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붙였다.

거기에 신시사이저에서 만들어낸 갖가지 화려한 음향과 효과음, 시퀀서를 이용한 리듬의 창조 등 새로운 편곡이 합쳐진 이 새로운 상품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듣기만 해도 신이 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 한 음반에서도 댄스음악과 발라드를 적절히 배분하고 댄스음악들도 「핑계」 「이유값지 않은 이유」 「잘못된 만남」 등의 순서를 통해 좀더 빠른 박자와 복잡해지는 편곡 등으로 소비자들을 강하게 자극하는 묘미를 보였다.

그러나 기획이 앞선 음악들이 갖는 약점도 있다. 그것은 대중음악 예술가로서의 자기 미학적 탐구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음악가들이 추구하고픈 자신의 세계들은 냉엄한 시장 논리에 바탕을 둔 기획력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대중 음악이 유통 구조에 있어서는 상품이지만 그 창작과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영역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상품과 시장을 주로 생각하는 기획력과 자기 표현에 목말라하는 창작 욕구와의 싸움일 수도 있다.

기획자가 주도하는 음악은 그래서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이 설사 새로운 음악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중의 새로운 취향을 파악했기 때문이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관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 음악들이 대중을 선도하거나 앞서지는 못한다. 서태지는 아티스트로의 변신을 꿈꾸면서 댄스뮤직을 포기했다. 신승훈 김건모는 여러 장의 음반을 내놓고 지속적인 스매시 히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음악적인 변화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획으로 무엇이 얻어지고, 또한 무엇을 잃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작곡보다는 편곡이 중요하고, 내용보다는 포장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획 상품의 합정은 프로듀서 스스로가 다양한 음악적 변신과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자세로 벗어나야 한다. 다행히 정석원 이승환 이승철 김현철 등의 가수들이 전문 프로듀서를 꿈꾸며 준비작업에 있다고 하니 몇 년안에 다양한 음악적 뿌리를 가진 전문 프로듀서들의 작품들로 한국 가요계가 좀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작업을 거쳐 생산된 음반들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5

SBS



이영미·연극평론가

0 석화는 연극계의 최고 스타이다. 그의 대사는 독특하다. 대개 번역극의 문체에 어울리는 그의 대사법은, 한국말의 정상적인 억양과는 매우 다른 일률적인 억양을 반복적으로 구사하며 그 빠르기 역시 규칙적이면서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들숨을 소리나게 들이 쉰다. 그의 이러한 대사는 처음 듣기에는 거슬리지만 20, 30분 이상 계속되면 극 전체에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관객을 그 리듬 속으로 끌어들여 독특한 재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대사법에 대해, 연극인들이 입을 모아 윤석화의 최대 단점이 대사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월간 「한국연극」 95년 6월호) 연극인이나 연극 애호가들은 그의 대사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윤석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는 이 묘한 대사법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어

연극 대사의 완전한 토착화를 바란다

번역극 대사투에서 탈피해 자연스러운 일상어로 감동을 주어야



내며 집중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연극의 언어가 리듬감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어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윤석화의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윤석화의 경우가 좀 심하다 뿐이지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번역극의 대사투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스타덤에 올라 있는 박정자나 김지숙 혹은 내로라하는 배우의 상당수가 역시 한국말 억양이 아닌 이상한 억양으로 대사를 하며, 텔레비전 외화 프로그램에서 성우가 더빙한 대사들이 한국인의 구어체 억양과는 달리 서양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신극들은 일제시대부터 서양 근대 연극의 번역으로부터 그 틀을 잡아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극계를 주도하는 이들 번역극은 우리와는 다른 서양의 생활 감각과 우리 일상어와는 전혀 다른 문어체 번역투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의 음식이 된장이나 김치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꼭 맞을 수는 없는 일인 것처럼, 이런 것들 역시 우리 것처럼 편안하게 토착화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연극의 대사투는 우리의 일상어와는 상당히 다른 억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 “어이구, 내 새끼, 이 엄마가 가진 어딜 가겠니?”라는 대사는 우리 일상어의 억양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같은 의미라도 “나의 귀여운 아이, 내 임무는 너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란다”는 식의 번역투로 된 대사라면 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 구어의 억양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처럼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서양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더욱 우리말 구어의 자연스러운 억양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젊은 연출가들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러한 불편한 번역극투의 억양이 많이 극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본 몇 편의 연극들은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60대 연출가 임영웅(그는 윤석화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와 박정

자의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의 연출가이기도 하다)이 연출한 「남자 죽이기」에서 주인공을 맡은 김금지의 대사는 윤석화 뺀치게 한국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물론 독특한 억양이 가진 경쾌한 리듬감이 코믹한 분위기를 돋우는 데에 일조했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한국말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50대 연출가 정진수 연출의 「누가 누구?」도 미국식 코미디물의 독특한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억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40대 연출가 김철리가 연출한 「메카로 가는 길」은 번역이 완전한 한국어 구어체가 되지 않았어도, 이전의 불편한 번역극 억양을 제거하고 비교적 우리말 구어 억양에 근접해 있었다. 특히 최근 작품 「덕혜옹주」(왼쪽 아래 사진)에서 윤석화는 이전의 비정상적인 억양을 많이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대사법으로 돌아와 있었다. 40대 연출가 한태숙이 배우를 적절하게 통제한 성과로 보인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신조로 삼고 있는 배우 최형인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한 한양레퍼토리 극단의 20대 젊은 배우들은 90년대의 일상어와 가장 가까운 대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번역극 억양을 가진 배우가 연극계 스타의 상당수인 것을 생각하면 완전한 극복은 요원하다. 판소리로 소리 훈련을 하고 마당놀이를 많이 하는 극단 민이나 미추의 배우들(김성녀 윤문식 김종엽 등), 창작극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연우무대의 배우들(문성근 김미경 등), 현재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활동해온 민족극 계열의 극단들이 정상적인 한국 일상어와 토종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한 눈물겨운 고투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5

SBS



문애란·블룸 이사

남편이 보도록 광고면을 펼쳐놓은 신문광고

광고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심리학적 접근을 늘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만한 광고가 한샘 인텔리전트 키친 광고라고 생각한다. 어느날 신문을 펼치니 전면 가득히 쓰여진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주부들의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가사일을 동정해주면서 집안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꼭 주부탓이 아니라고 격려(?)해주고 있다. 그리고 부업이 달라지면 가사일에서 벗어나, 가족을 위해 좀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설득한다.

2차 광고는 “아니 내 몸이 열 개인 줄 알아?”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해야 하고, 모두 ‘엄마’만을 찾는 보통의 가정을 그리면서 주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남편과 꼭 함께 보고 싶은 부업광고

주부의 마음의 소리를 솔직히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로 성공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환경이 문제'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광고들이 신문에 실리니까, 주부들이 남편이 잘 보는 소파위에 이 광고가 실린 페이지를 펼쳐놓았다고 한다. "난 노는 게 아니라구요." 소리없이 외치면서...

그 후 3차 광고는 '주부의 시간을 되찾아주는 빠른 부업'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부업이 자동화, 기능화되어 가사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

마음에 공감을 주고 이성으로 설득하니, 마음 약한 주부들은 이 부업을 꼭 자신의 집에 설치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업일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빠른 부업? 느린 부업?

인쇄광고가 나가서 붐을 일으키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시계소리가 제각제각 들리면서 빠르게 화면이 전개되는 빠른 부업 광고가 주부의 눈을 잡았다.

어떤 남편은 "그 광고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 광고만 나오면 '나도 시간 좀 되찾게 부업 좀 바꿔줘'하고 졸라대서 정말 귀찮아요"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부업광고가 '아름다운 부업'

부업이

이제 100만 원의 수익을



'행복한 부업' 등 추상적이고 미적인 감각으로 소구한 데 비해, 주부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잡아 광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의식적 동기유발 화면, 광고방송 심의에 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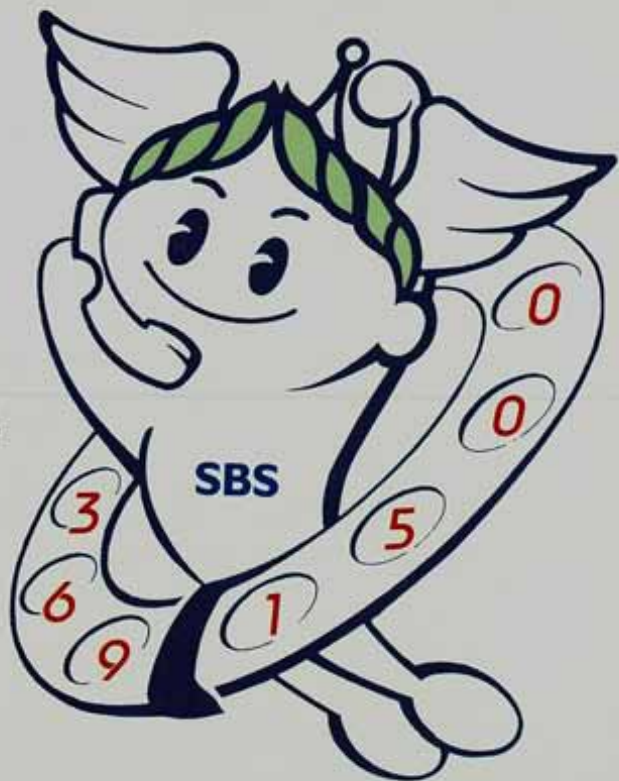
'빠르다'라는 컨셉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나치게 빠른 화면으로 편집하여 방송심의에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후일담. 백낙준 씨가 제작한 칠성 사이드 CF 광고 보다도 빨랐다나...

이제는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 환상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보다는 소비자의 마음과 거울을 맞대듯 그들의 마음 속에 "그렇지, 바로 내 얘기야!"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광고도 제품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S**

주부의 시간을 되찾아 주는 빠른 부업

잠깐만!

SBS 청소년 상담실
'빛돌이 전화'는
다정한 친구처럼
항상 곁에 있습니다



369-1500

SBS 청소년 상담실 '빛돌이 전화'는 94년 5월 5일,
SBS 캠페인 '어린이를 바르게' 일환으로 개설되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 진학, 이성, 성, 친구, 가정, 건강
문제를 비롯해 약물, 가출, 취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해주어 우리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에 도움과 조언을 주는 일에 앞장서는 '빛돌이
전화'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SBS-TV 주간 기본 편성표

SBS-TV Ch 6

1995년 6월 1일 현재

시 분	월	화	수	목	금
AM 6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				
7					
8 10	전국을 달린다				
8 40	아침 연속극 그대 목소리				
9 10	전국 주부대항 퀴즈				
9 40	SBS 뉴스라인				
10					
11					
PM 12					
1					
2	<h2>아침 연속극 「그대 목소리」</h2> <p>남편과의 사별 후 억척스레 가정을 일궈 '현대판 명문가'를 이룬 재동할머니(윤여정 분). 그의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사는 삶과 다양한 세대의 모습 등이 밀도있게 그려지는 「그대 목소리」는 월~토요일 아침 8시 4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p>				
3	SBS 뉴스				
4	또도랑 우리랑 우주 소년 아톰 스페이스 캣 삼총사 수퍼그랑조 생방송 달려라 코바				
5 30	SBS 뉴스				
5 40	또도랑 우리랑 우주 소년 아톰 스페이스 캣 삼총사 수퍼그랑조 생방송 달려라 코바				
6 25	또도랑 우리랑 우주 소년 아톰 스페이스 캣 삼총사 수퍼그랑조 생방송 달려라 코바				
6 50	또도랑 우리랑 우주 소년 아톰 스페이스 캣 삼총사 수퍼그랑조 생방송 달려라 코바				
7 05	형사 5 코미디 전망대 슈퍼TV 세계가 보인다 점프 캠프 추가사크리스티				
8	SBS 8 뉴스				
8 45	세계의 창				
8 50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9 50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9 55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10 50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10 55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11 50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AM 12	SBS 대하사극 장희빈 SBS 세드라인 뉴스 SBS 특별기획 아스팔트 사나이 SBS 영화특급 오늘의 스포츠				

시 분	토	일	시 분
AM 6	토요일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SBS 뉴스 젊은 인생	AM 6 10
7	토요일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일요일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7
8 10	환경탐사 그린면을 찾아라	일요가족 드라마 가치네	8 30
8 40	그대 목소리		8
9 10	휴먼다큐 사랑의 징검다리	마가렛 조는 못말려	9 30
9 40	SBS 뉴스라인		9
10	생방송 행복찾기	TV 남과 여	10
11	생방송 행복찾기	좋은 친구들	11
PM 12	SBS 뉴스		PM 12 10
1	SBS 화제작 두려움 없는 사랑	일요명화	1
2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2
3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
4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4
5 30	의화시리즈 슈퍼맨	생방송 TV 가요 20	5 30
5 55	의화시리즈 슈퍼맨		5 55
6	기쁜 우리 토요일	TV 전과왕국	6
7	웃으며 삼시다	TV 전과왕국	7
8	SBS 뉴스 2000		8 30
8 30	스포츠가 좋아요		8 30
8 50	스포츠가 좋아요		8 50
9 50	SBS 주말극장 육이 이모		9 50
10 50	박봉숙 변호사	칠현모의	10 50
10 55	SBS 세드라인 뉴스		10 55
11 50	그것이 알고싶다	SBS 세드라인 뉴스	11 40
11 55	SBS 세드라인 뉴스		11 45
12	SBS 콘서트 음악세상	SBS 비독죄강전 TV를 말한다	AM 12 50

SBS 라디오 주간 기본 편성표

SBS AM STEREO 792 KHzHLSQ

1995년 6월 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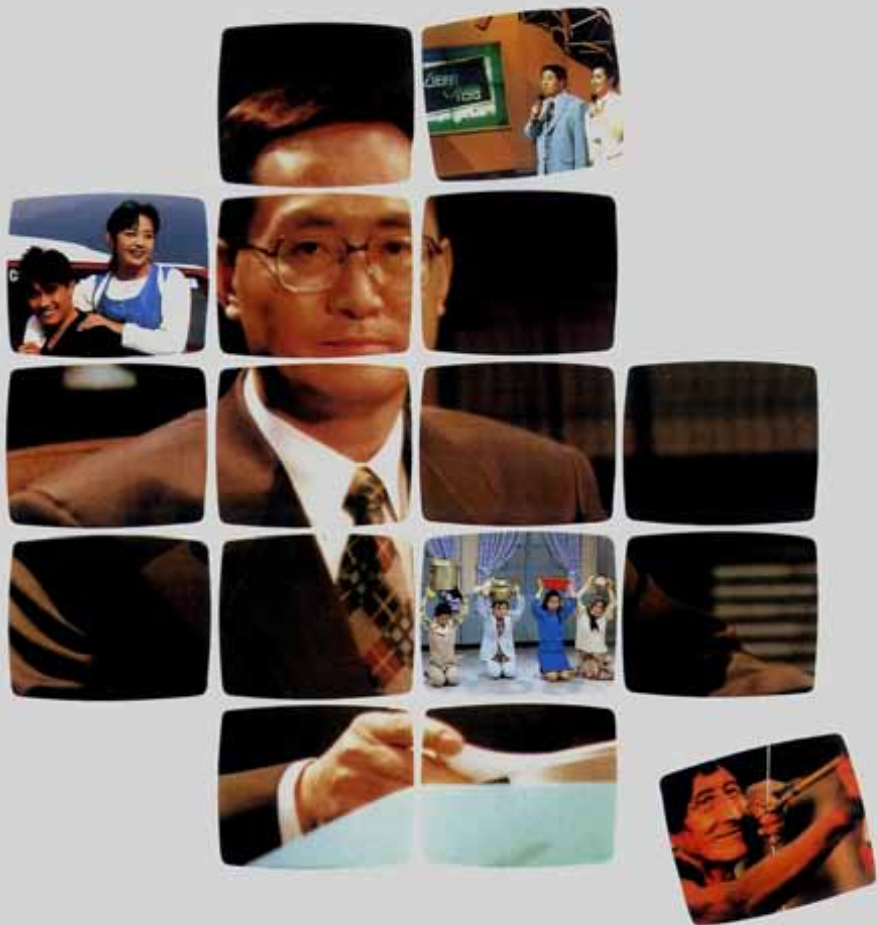
시 분	월~토	일	분 시
AM 5 05	뉴스 마음은 언제나 청춘 · 진행/유영미 · 연출/이정은		AM 5 05
6 05	뉴스 기상정보 출발 성공시대 · 진행/노영환 · 연출/정태익		6 05
7 15	아침종합뉴스 세계를 보자 · 연출/전윤표	 광복 50년 생활의 발자취를 따라 · 연출/박동주, 전문수 이해성의 세계음악 · 연출/이재준	7 10
7 20	김종찬의 서울 전당대 · 연출/전윤표		7 20
8 50	녹색시대 · 연출/이영일		8 50
8 55	공항정보		8 55
9 05	792 정보매거진 · 진행/한종희, 류지현 · 연출/박성원	792 일요와이드 · 진행/박상도, 이소영 · 연출/전문수	9 05
10 05	손석기의 지구촌 24시 · 연출/이영일		10 05
11 05	정오종합뉴스 태진아·송선경의 가요 리서치 · 연출/김상일		11 05
PM 12 30	노사연·이무송의 신나는 오후 2시 · 연출/이재준	정오종합뉴스 운전석 노래방 · 연출/김상일	PM 12 30
1 05	김장남의 트롯대행진 · 연출/이진규		1 05
2 05	792 토크쇼 정홍택의 이야기 세상 · 연출/김동운	저녁종합뉴스 SBS 뉴스 2000 TV 동시 방송 (토, 일)	2 05
3 05	임국희의 달빛노래 · 연출/신용현		3 05
4 05	윤종신의 기쁜 우리 젊은 날 · 연출/김광태		4 05
AM 12 05	뉴스 SBS PC 통신 · 진행/이기성 · 연출/김국은		AM 12 05
1 05	밤이 흐르는 곳에 · 진행/김태욱 · 연출/김국은		1 05

· 도로 정보 : 오전 7시~오후 8시, 정시, 30분 뉴스 후

· 교통 캠페인 1일 13회, 캠페인 1일 5회

신뢰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SBS 프로덕션은 당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있게 제공해 드립니다.



- 방송용 프로그램제작
-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 국내프로그램 해외판매 대행
- SBS 프로그램 판매, 배급
- 더빙, 편집시설 용역사업
- 출판, 음반, 이벤트 사업 등
- 국내외 합작제작 및 공동제작
- 기업이미지 홍보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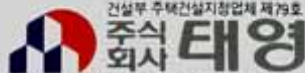
SBS 프로덕션



자기 집을 2만 여채나 지은 사람들!

**전국에 건설된 2만 여채의 태영아파트 —
모두 내집짓듯 정성들여 지은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영아파트를 방문해 보시곤 '참 꼼꼼히 살기 좋게 잘 지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영아파트는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이들이 '이 집은 내가 살 집이다' 하는 생각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설계와 튼튼한 시공, 그리고 하지없는 깔끔한 마무리 — 정말 내집처럼 정성들여 지은 아파트, 태영아파트입니다.



건설부 주택건설진흥법 제79호

**주식
회사 태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개발사업 본부 : 784-2431 ~ 9